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 ▶ 책임연구원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안현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 대상의 국내 첫 패널조사 연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선정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각 2,30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조사 데이터 공개, 학술대회 개최, 분석 보고서 발간 등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연구 4차년도인 올해에는 제1~3차년도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한 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 1년간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 KCYPS]의 중1 패널 제1~3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이 중학교 시절 3년간 체험활동 참여 정도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2010년부터 2011년)의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참여 정도가 중학교 3학년(2012년)에서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사회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이 지닌 의미를 찾아보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정도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교 3년간의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과 시간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봉사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은 중학교 2학년에 감소했다가 3학년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대부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 규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다양한 자아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영역 수나 시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친구와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신뢰감, 학습활동,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등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참여율, 참여시간)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절의 사회적 관계의 발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중학생, 체험활동, 자아인식, 사회적 발달, 종단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1993년 청소년수련활동이 정책 대상으로 법제화된 이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음.
-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실태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종단조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이 연구는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중학교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태나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님.
- 또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2010년부터 2011년)의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참여 정도가 중학교 3학년(2012년)이 된 당시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사회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이 지닌 의미를 찾아보려는 목적을 지님.

2. 연구내용과 방법

-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까지 3년간 체험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변화 양상을 체험활동 9개 영역(①건강보건 활동, ②과학정보 활동, ③교류 활동, ④모험 개척 활동, ⑤문화예술 활동, ⑥봉사 활동, ⑦직업 체험 활동, ⑧환경 보존 활동, ⑨자기(인성) 개발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 둘째,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의 수준별 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 시기 청소년의 자아인식이나 사회적 발달 정도 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중학교 1학년 1차년도(2010년) 패널 확정표본인 2,351명 중에서 중학교 3학년(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2,22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체험활동 관련 변화 분석을 위해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변량분석(ANOVA) 등의 통계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PSS 20.0을 통계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음.

3. 주요결과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정도 변화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의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봉사활동(2010년 61.0%, 2011년 52.6%, 2012년 56.7%)과 직업체험활동(32.0%, 21.2%, 28.0%)은 중학교 2학년에 감소했다가 3학년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특히 대부분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 규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남.
-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 동안 총 참여시간의 1년 평균시간도 참여율과 유사하게 중학교 1학년(2010년)에는 평균 7.22시간, 중학교 2학년에는 평균 9.49시간, 중학교 3학년(2012년)에는 6.91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봉사활동(2010년 9.51시간, 2011년 10.66시간, 2012년 10.82시간)은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자원봉사활동 의무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희망 체험활동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활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한 반면에, 건강보활동이나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학년별로 체험활동 영역별 희망 체험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중학교 1학년)에는 모험·개척 활동(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1년(중학교 2학년)과 2012년(중학교 3학년)에는 직업체험활동(2011년 17.0%, 2012년 20.0%)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 변화

-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은 총 2.41개,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1.61개, 중학교 3학년은 1.53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높게 나타남.
-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2012년)까지 1년간 평균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중학교 1학년 총 18.98시간, 중학교 2학년 14.92시간, 중학교 3학년 11.34시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보다 남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규모는 낮을수록 참여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에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는 중학교 1학년 3.11, 중학교 2학년 3.16, 중학교 3학년 3.1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고, 남자보다 여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

-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85), 중(평균=2.80), 하(평균=2.79) 집단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상(평균=2.91), 하(평균=2.78), 중(평균=2.76) 집단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 중학교 3학년 시기 자아정체감의 경우도 중학교 2학년까지의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68), 중(평균=2.60), 하(평균=2.51) 집단의 순으로, 참여 시간 상(평균=2.67), 중(평균=2.61), 하(평균=2.51) 집단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의 경우도 상(평균=2.72), 중(평균=2.62), 하(평균=2.59)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 중학교 3학년 시기 진로정체감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3.03), 중(평균=2.91), 하(평균=2.77) 집단의 순으로,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이 상(평균=3.00), 중(평균=2.93), 하(평균=2.77) 집단의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가 상(평균=3.10), 하(평균=2.91), 중(평균=2.88)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학교 3학년 시기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2학년의 참여 영역 수가 상(평균=3.25), 중(평균=3.17), 하(평균=3.11) 집단의 순으로, 참여 시간이 상(평균=3.23), 중(평균=3.17), 하(평균=3.11) 집단의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는 상(평균=3.29), 하(평균=3.17), 중(평균=3.16)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참여율, 참여시간)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목표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사회적 발달

- 중학교 3학년 시기 친구와 의사소통 능력은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3.12), 중(평균=3.06), 하(평균=2.99) 집단의 순으로, 총 참여 시간도 상(평균=3.11), 중(평균=3.07), 하(평균=2.99)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사한 맥락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 친구간 신뢰 정도의 경우도, 중학교 2학년까지 체험활동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3.17), 중(평균=3.09), 하(평균=2.96) 집단의 순으로, 참여 시간 상(평균=3.15), 중(평균=3.10), 하(평균=2.96) 집단의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가 상(평균=3.23), 중(평균=3.07), 하(평균=3.07)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습활동도 중학교 2학년까지의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84), 중(평균=2.72), 하(평균=2.62) 집단의 순으로, 총 참여 시간이 상(평균=2.82), 중(평균=2.72), 하(평균=2.61)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 규칙준수 정도의 경우도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91), 중(평균=2.83), 하(평균=2.74) 집단의 순으로, 전체 참여 시간이 상(평균=2.91), 중(평균=2.82), 하(평균=2.74) 집단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 상(평균=2.96), 중(평균=2.84), 하(평균=2.82)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학교 3학년 시기 교사와의 관계도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상(평균=2.95), 중(평균=2.85), 하(평균=2.70) 집단의 순으로, 전체 참여 시간이 상(평균=2.95), 중(평균=2.83), 하(평균=2.70) 집단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 상(평균=3.04), 중 및 하(평균=2.82)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인식도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상(평균=2.54), 중(평균=2.46), 하(평균=2.34) 집단의 순으로, 총 참여 시간이 상(평균=2.51), 중(평균=2.48), 하(평균=2.34) 집단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 상(평균=2.56), 중(평균=2.48), 하(평균=2.46) 집단의 순으로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공동체 의식이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 정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참여율, 참여시간)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절의 사회적 관계의 발달 정도가 높게 나타남.

4. 정책제언

○ 첫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은 미래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이나 진로정체감 등 자아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나 참여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단 참여한 이후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짐.
-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 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 제도, 체험활동의 우수한 결과 사례에 대한 포상 강화 등)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진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의 전환 또는 기부 등)를 개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격차에 대한 인식 및 해소 방안 마련

- 분석결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가족의 소득규모별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시간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경비 보조, 관련 시설 설치나 이용시 소외지역 우선배정 강화 등)이 필요함.

○ 셋째, ‘청소년’이라는 고객 중심의 체험활동 기획 및 전문화

- 분석결과 중학생 중에서도 학년별로 참여 희망 영역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참여시간이나 참여율 등이 점차 일부 영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특정 영역의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희망 정도가 낮다고 그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의 교급이나 학년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요구에 적합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청소년 수련활동시설의 경우 증가추세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중장기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충원을 강화해야 함.

○ 다섯째, 사회적 자본으로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가 지닌 의미의 홍보 확산

- 청소년 체험활동 경험은 단순히 청소년기에 효과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가 지닌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3. 분석 대상 및 방법	7
II.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논의	15
1.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	17
1) 청소년 체험활동의 개념	17
2) 청소년 체험활동의 영역 구분	18
2.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발달	20
1)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아인식	20
2) 청소년 체험활동과 삶의 만족도	21
3) 청소년 체험활동과 사회적 발달	21
III.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 변화	25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정도 변화	27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 변화	27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시간 변화	34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 만족도 변화	41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희망 변화	48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집단구분	55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와 집단 구분	55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시간과 집단 구분	59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와 집단 구분	62

IV.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65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삶의 만족도	67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	67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목표·삶의 만족도	72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사회적 발달	75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관계	75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교생활	80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사회인식	86
 V. 요약 및 정책제언	 91
1. 분석결과 요약	93
2.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97

표 목차

〈표 I-1〉 조사 대상 청소년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8
〈표 II-1〉 수련활동인증제에서의 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체계	19
〈표 III-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 변화	27
〈표 III-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율 변화	30
〈표 III-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율 변화	31
〈표 III-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율 변화	33
〈표 III-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34
〈표 III-6〉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시간 변화	37
〈표 III-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38
〈표 III-8〉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40
〈표 III-9〉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41
〈표 III-10〉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만족도 변화	44
〈표 III-1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45
〈표 III-1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46
〈표 III-1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희망 정도 변화 (복수응답)	48
〈표 III-1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희망 정도 변화 (복수응답) .	51
〈표 III-1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희망 정도 변화	52
〈표 III-16〉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희망 정도 변화 ..	53
〈표 III-17〉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영역 수	55
〈표 III-18〉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총 영역 수 (2010~2012년) ..	56
〈표 III-19〉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총 영역 수 (2010~2012년) ..	57
〈표 III-20〉 연도별 체험활동 총 참여 영역 수	58
〈표 III-21〉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에 따른 집단 구분 (중1-중2) ...	58

〈표 Ⅲ-22〉 연도별 체험활동 평균 참여 시간	59
〈표 Ⅲ-23〉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 (2010~2012년) ..	60
〈표 Ⅲ-24〉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 (2010~2012년) ..	61
〈표 Ⅲ-25〉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시간에 따른 집단 구분 (중1-중2)	61
〈표 Ⅲ-26〉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	62
〈표 Ⅲ-27〉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2010~2012년) ...	63
〈표 Ⅲ-28〉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2010~ 2012년) ...	64
〈표 Ⅲ-29〉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에 따른 집단 구분 (중1-중2)	64
〈표 Ⅳ-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존중감	68
〈표 Ⅳ-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정체감	70
〈표 Ⅳ-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진로정체감	71
〈표 Ⅳ-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목표	73
〈표 Ⅳ-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만족도	74
〈표 Ⅳ-6〉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	76
〈표 Ⅳ-7〉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 신뢰 정도	77
〈표 Ⅳ-8〉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79
〈표 Ⅳ-9〉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습활동	81
〈표 Ⅳ-10〉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교규칙 준수정도	82
〈표 Ⅳ-1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우관계	84
〈표 Ⅳ-1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사관계	85
〈표 Ⅳ-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지역사회 인식	87
〈표 Ⅳ-1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공동체의식	88
〈표 Ⅳ-1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다문화 수용	90

그림 목차

[그림 Ⅲ-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 변화	28
[그림 Ⅲ-2]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율 변화	29
[그림 Ⅲ-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35
[그림 Ⅲ-4]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시간 변화	36
[그림 Ⅲ-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42
[그림 Ⅲ-6] 학년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43
[그림 Ⅲ-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희망 체험활동 변화	49
[그림 Ⅲ-8] 학년별 청소년의 희망 체험활동 변화	50
[그림 Ⅲ-9]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영역 수	55
[그림 Ⅲ-10]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총 영역 수	56
[그림 Ⅲ-11] 연도별 체험활동 총 참여 영역 수 변화	57
[그림 Ⅲ-12] 연도별 체험활동 평균 참여 시간	59
[그림 Ⅲ-13]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총 참여시간	60
[그림 Ⅲ-14]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	62
[그림 Ⅲ-15]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 ..	63
[그림 Ⅳ-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존중감	67
[그림 Ⅳ-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정체감	69
[그림 Ⅳ-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진로정체감	70
[그림 Ⅳ-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목표	72
[그림 Ⅳ-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만족도	74
[그림 Ⅳ-6]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간 의사소통능력	75
[그림 Ⅳ-7]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 신뢰 정도	77
[그림 Ⅳ-8]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78
[그림 Ⅳ-9]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습활동	80

[그림 IV-10]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교규칙 준수 정도	82
[그림 IV-1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우관계	83
[그림 IV-1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사관계	85
[그림 IV-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지역사회 인식	86
[그림 IV-1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공동체의식	88
[그림 IV-1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다문화 수용	8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시점을 1993년 청소년기본법 시행으로 보고 있고, 2013년은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간 청소년수련활동 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은 청소년의 욕구나 사회적 요구와 같은 환경적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학교나 학원에서 실시되는 교과목 중심의 학습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정책도 초기에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 대책이 핵심을 이루었다가, 점차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문화에 대한 강조로 변화하여 왔고,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즉,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이 별도의 전문화된 정책분야로 강화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지도사 등 수련활동에 필요한 물작인적 자원의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와 같은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다.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나 장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2011년 기준 73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993년부터 양성되고 있는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도 26,830여명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2). 이 밖에 교육제도의 측면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과외 활동이 제도화되었고, 최근에는 자유학기제나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도입으로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활동 법제화 20년이라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나 관련 연구나 조사

측면에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조사나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어떠한 효과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나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다양하고 다량의 관련 연구나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실태나 효과에 대해 검증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자원봉사나 동아리활동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조사대상도 특정 학령기 청소년에 국한되는 횡단적 조사에 머물렀다.

즉, 다양한 영역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실태나 이에 따른 효과와 그 의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매우 많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교급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등 일부 활동에 집중되었다. 특히 조사나 분석도 1회성에 그친 횡단조사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대규모의 동일한 조사대상으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험활동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종단적 방법(패널조사)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실태 변화를 다년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종단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중학교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 참여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세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태나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체험활동 참여경험이나 참여정도가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사회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둘째,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체험활동 참여정도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의 자아인식이나 사회적 발달 정도 등의 차이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결과 중에서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3학년(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내용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체험활동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를 재점검하고 이 연구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제시하는 체험활동의 9개 영역 구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체험활동과 청소년의 자아인식이나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와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의 기본방향이나 내용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¹⁾

둘째, 이 연구에서는 9가지 체험활동 영역별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되는 시기인 3년간 청소년의 참여정도를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로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즉, 9가지 체험활동 영역별로 중학교 청소년의 3년간 참여정도의 변화를 성별, 거주지역규모별, 가구의 소득규모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중학교 3년 동안 청소년의 체험활동 9가지별 참여정도의 변화를 1년간 평균 참여 영역 수,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을 성별, 도시규모, 가구의 소득규모별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3년간 9개 영역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정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인식 및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기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련활동 영역구분에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① 건강·보건 활동, ② 과학·정보 활동, ③ 교류 활동, ④ 모험·개척 활동, ⑤ 문화·예술 활동, ⑥ 봉사 활동, ⑦ 직업체험 활동, ⑧ 환경보존 활동, ⑨ 자기(인성) 개발 활동 등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체험활동을 수련활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지 문항으로 사용한 '청소년체험활동'이라는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여부와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수준별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간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목표와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체험활동 전반에 대한 분석을 위해 9개 체험활동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전체를 분석하였고, 그 영향을 분석하기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등은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위의 네 번째 연구내용과 유사하게,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전체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수준별로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인식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층화다단집락추출법으로 표집된 3개 패널 각 2,3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년도(2010년) 확정표본인 2,351명 중에서 중학교 3학년(2012년)까지 패널로 지속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2,22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분석대상인 2,229명의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성별, 부모구성, 부모학력, 도시규모, 가구 소득규모, 부모 양육 방식, 성적(과목별 점수, 주관적 평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현황은 <표 I-1>과 같으며, 최종 분석이 되는 중학교 3학년(2012년) 당시 인구·사회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30명(50.7%), 여자 1,099명(49.3%)로 나타났으며, 부모구성은 ‘친아버지+친어머니’ 1,879명(86.5%), ‘친어머니만’ 136명(6.3%), ‘친아버지만’ 105명(4.8%), ‘부모님 모두 안 계심’ 26명(1.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 중 아버지 학력은 고졸(820명, 40.9%)과 대졸(809명, 40.3%)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1,101명, 54.1%)과 대졸(626명, 30.7%), 보호자 학력은 중졸 이하(21명, 80.8%)와 고졸(5명, 19.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는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서울시, 광역시,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서울 197명(9.1%), 광역시 703명(32.4%), 시·군·구 1,272명(58.6%)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규모별 집단구분은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 소득 5분위별 경계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 소득분포 상위 및 하위 20%를 적용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였고, 상 613명(28.8%), 중 1,227명(57.6%), 하 290명(13.6%)으로 나타났다.

표 I -1

조사 대상 청소년 (중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항목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1,130	50.7	-	-	1,130	50.7	-	-	1,130	50.7	-	-
	여자	1,099	49.3	-	-	1,099	49.3	-	-	1,099	49.3	-	-
	전체	2,229	100.0	-	-	2,229	100.0	-	-	2,229	100.0	-	-
도시 규모	서울	207	9.3	-	-	196	9.1	-	-	197	9.1	-	-
	광역시	714	32.0	-	-	696	32.4	-	-	703	32.4	-	-
	시군구	1,308	58.7	-	-	1,258	58.5	-	-	1,272	58.6	-	-
	전체	2,229	100.0	-	-	2,150	100.0	-	-	2,172	100.0	-	-
가구 소득 규모	상	663	29.7	-	-	625	29.1	-	-	613	28.8	-	-
	중	1,128	50.6	-	-	1,234	57.4	-	-	1,227	57.6	-	-
	하	438	19.7	-	-	291	13.5	-	-	290	13.6	-	-
	전체	2,229	100.0	-	-	2,150	100.0	-	-	2,130	100.0	-	-
부모 구성	친아버지+친어머니	1,894	85.0	-	-	1,877	87.3	-	-	1,879	86.5	-	-
	친아버지만	117	5.3	-	-	98	4.6	-	-	105	4.8	-	-
	친어머니만	148	6.6	-	-	123	5.7	-	-	136	6.3	-	-
	친아버지+새어머니	28	1.3	-	-	12	0.6	-	-	16	0.7	-	-
	친어머니+새아버지	15	0.7	-	-	8	0.4	-	-	8	0.4	-	-
	부모님 모두 안 계심	25	1.1	-	-	32	1.5	-	-	26	1.2	-	-
전체	2,227	100.0	-	-	2,150	100.0	-	-	2,170	100.0	-	-	

항목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부	중졸 이하	72	3.5	-	63	3.2	-	-	75	3.7	-	-
	고졸	884	42.9	-	812	41.0	-	-	820	40.9	-	-
	전문대 졸	271	13.1	-	200	10.1	-	-	206	10.3	-	-
	대졸	706	34.3	-	821	41.5	-	-	809	40.3	-	-
	대학원 졸	128	6.2	-	84	4.2	-	-	97	4.8	-	-
	전체	2,061	100.0	-	1,980	100.0	-	-	2,007	100.0	-	-
모	중졸 이하	74	3.6	-	57	2.8	-	-	64	3.1	-	-
	고졸	1,196	57.5	-	1,089	54.3	-	-	1,101	54.1	-	-
	전문대 졸	272	13.1	-	210	10.5	-	-	208	10.2	-	-
	대졸	484	23.3	-	612	30.5	-	-	626	30.7	-	-
	대학원 졸	54	2.6	-	38	1.9	-	-	37	1.8	-	-
	전체	2,080	100.0	-	2,006	100.0	-	-	2,036	100.0	-	-
기타 보호 자	중졸 이하	14	77.8	-	26	83.9	-	-	21	80.8	-	-
	고졸	3	16.7	-	4	12.9	-	-	5	19.2	-	-
	전문대 졸	0	0.0	-	0	0.0	-	-	0	0.0	-	-
	대졸	0	0.0	-	1	3.2	-	-	0	0.0	-	-
	대학원 졸	1	5.6	-	0	0.0	-	-	0	0.0	-	-
	전체	18	100.0	-	31	100.0	-	-	26	100.0	-	-

항목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부모 양육 방식	감독	2,228	100.0	1.84	0.66	-	-	-	-	-	-	-	-
	애정	2,226	100.0	1.99	0.65	-	-	-	-	-	-	-	-
	비일관성	2,227	100.0	2.67	0.68	-	-	-	-	-	-	-	-
	과잉기대	2,227	100.0	2.38	0.66	-	-	-	-	-	-	-	-
	과잉간섭	2,226	100.0	2.59	0.63	-	-	-	-	-	-	-	-
	합리적 설명	2,227	100.0	2.18	0.67	-	-	-	-	-	-	-	-
	방임	-	-	-	-	2,227	100.0	1.87	0.59	2,227	100.0	1.84	0.56
	학대	-	-	-	-	2,227	100.0	3.16	0.71	2,225	100.0	3.16	0.72
성적 과목별 점수	국어	-	-	-	-	2,215	100.0	4.40	2.19	2,188	100.0	4.55	2.23
	수학	-	-	-	-	2,215	100.0	5.23	2.55	2,172	100.0	5.29	2.61
	영어	-	-	-	-	2,213	100.0	4.77	2.57	2,177	100.0	5.08	2.57
	과학	-	-	-	-	2,211	100.0	4.88	2.47	2,170	100.0	5.22	2.49
	사회	-	-	-	-	2,209	100.0	4.85	2.51	2,134	100.0	4.62	2.44
	역사	-	-	-	-	-	-	-	-	2,107	100.0	4.88	2.54
	도덕	-	-	-	-	2,145	100.0	4.25	2.29	2,027	100.0	4.09	2.28
	가정/기술	-	-	-	-	2,191	100.0	4.60	2.28	2,150	100.0	4.65	2.33
	음악	-	-	-	-	2,001	100.0	4.92	2.37	1,941	100.0	4.77	2.57
	미술	-	-	-	-	2,052	100.0	4.90	2.42	2,046	100.0	4.56	2.51
	체육	-	-	-	-	2,146	100.0	4.29	2.43	2,100	100.0	4.02	2.47

항목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성적 주관적 평가	국어	-	-	-	2,226	100.0	2.82	0.99	2,228	100.0	2.89	1.04
	수학	-	-	-	2,226	100.0	3.19	1.21	2,228	100.0	3.27	1.26
	영어	-	-	-	2,225	100.0	2.98	1.21	2,228	100.0	3.20	1.25
	과학	-	-	-	2,223	100.0	3.02	1.15	2,228	100.0	3.22	1.20
	사회	-	-	-	2,223	100.0	3.03	1.19	2,190	100.0	2.94	1.16
	역사	-	-	-	-	-	-	-	2,172	100.0	3.04	1.22
	도덕	-	-	-	2,162	100.0	2.79	1.07	2,104	100.0	2.78	1.10
	가정/기술	-	-	-	2,204	100.0	2.94	1.06	2,214	100.0	2.98	1.09
	음악	-	-	-	2,031	100.0	3.10	1.13	2,067	100.0	3.04	1.20
	미술	-	-	-	2,076	100.0	3.10	1.12	2,165	100.0	2.96	1.18
전체 성적 만족도	체육	-	-	-	2,167	100.0	2.81	1.15	2,190	100.0	2.78	1.19
		-	-	-	2,227	100.0	2.74	0.81	2,228	100.0	2.75	0.80
합계	2,229				2,229				2,229			

2) 주요 변인별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첫째, 패널조사에서 체험활동의 범주와 참여정도 관련된 문항은 9개의 체험활동 영역별 지난 1년간 참여여부, 참여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활동의 영역은 ① 건강·보건 활동(신체단련 활동, 안전·응급처치 활동 등), ② 과학·정보 활동(모형/로봇 활동, 우주/천체 활동, 정보캠프 활동 등), ③ 교류 활동(국제교류 활동, 다문화이해 활동, 세계문화 비교 활동 등), ④ 모험·개척 활동(탐사등반, 야영 활동, 해양 활동, 극기훈련 등), ⑤ 문화·예술 활동(지역문화, 세계문화, 어울마당, 전통예술 활동 등), ⑥ 봉사 활동(일손돕기, 캠페인, 자선구호 활동 등), ⑦ 직업체험 활동(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⑧ 환경보존 활동(생태 활동, 숲체험, 환경살리기 활동 등), ⑨ 자기(인성) 개발 활동(자기표현 활동, 심성수련 활동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9가지 체험활동 영역별 지난 일 년 동안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참여 경험이 있다면 총 참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1년 단위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1박 이상의 체험활동을 한 경우 1박 당 8시간으로 계산(예: 1박 2일 → 8시간 + 4시간 = 12시간)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조사하였고, 만족도는 4점 Likert 척도(매우 만족한다=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로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1개 체험활동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있었던 경우는 주된 내용 하나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삶의 만족도는 ① 자아존중감, ② 자아정체감, ③ 진로정체감, ④ 삶의 목표, ⑤ 삶의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 10개 문항으로, 자아정체감은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등 8개 문항으로, 진로정체감은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등 8개 문항을,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등 15개 문항으로, 삶의 만족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 ~ 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코딩을 하여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조사문항별 척도의 출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코딩북에 기록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은 ① 친구관계, ② 학교생활, ③ 사회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친구관계는 세부적으로 ① 친구와의 의사소통, ② 친구와의 신뢰, ③ 친구로부터의 소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와의 의사소통은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등 3개 문항으로, 친구와의 신뢰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등 3개 문항으로, 친구로부터의 소외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 ~ 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의사소통과 신뢰정도는 점수를 역코딩 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나 신뢰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친구로부터의 소외도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조사항별 척도의 출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코딩북에 기록되어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는 세부적으로 ① 학습활동, ② 학교규칙 준수, ③ 학교내 교우관계, ④ 교사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학습활동은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등 5개 문항을, 학교 규칙 준수는 ‘나는 당번과 같이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 5개 문항을, 학교 내 교우관계는 ‘나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 5개 문항을, 교사관계와 관련하여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 ~ 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이나 교우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조사항별 척도의 출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코딩북에 기록되어 있다.

청소년의 사회인식은 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② 공동체에 대한 인식, ③ 다문화 수용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나는 우리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등 6개 문항으로, 공동체 의식은 ‘주변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등 4개 문항을, 다문화 수용인식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이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 ~ 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나 공동체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조사항별 척도의 출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코딩북에 기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중학교 3학년에서의

자아인식과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 변량분석(ANOVA) 등의 통계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PSS 20.0을 통계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

제 2 장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논의

1.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
2.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발달

제 2 장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논의

1.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

1) 청소년 체험활동의 개념

청소년수련활동이 정책적인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지도사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확장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체험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영역에 대해 정책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청소년’과 ‘체험활동’이라는 개념이 지닌 다양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체험’이라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 교육학적, 정책적 관점에서의 이해 방식의 차이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혼란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개념을 관련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먼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개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조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수련활동과 별도로 ‘청소년교류활동’을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문화활동’을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볼 때,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간의 중복성이나 분류체계의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의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체험’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청소년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활동에서 ‘체험’의 중요성은 청소년이 ‘경험을 통해 지각(知覺, perception)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지각의 변화가 다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연속적인 학습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된다(조미영, 2010). 요컨대, 청소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 능력과 요소들을 강화하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발달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체험활동의 영역 구분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영역구분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에 따라 체험활동 자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영역 구分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것처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영역구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이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수련활동의 영역을 ①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② 과학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③ 봉사와 협력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④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울 수 있는 수련활동, ⑤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수련활동, ⑥ 국제 감각을 고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⑦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⑧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필요한 수련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이후에는 세부적인 활동 영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후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활동의 영역 구분을 기준으로 영역화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내용을 중심으로 ① 건강·보건 활동, ② 과학·정보 활동, ③ 교류 활동, ④ 모험 개척 활동, ⑤ 문화·예술 활동, ⑥ 봉사 활동, ⑦ 직업

체험 활동, ⑧ 환경 보존 활동, ⑨ 자기(인성) 개발활동으로 나누고 있다<표 II-1>.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체험활동 영역구분을 수련활동인증제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표 II-1 수련활동인증제에서의 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체계

영역	영역별 활동 예시
건강·보건활동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교류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모험개척활동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봉사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직업체험활동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환경보존활동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자기(인성)개발활동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기타	인증신청기관 직접 명기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2.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발달

1)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아인식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2012년 조사 내용을 기초로 청소년의 자아인식을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태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개인적 발달 변화와 사회적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체험활동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가 있고(김미희, 2005), 특히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의 자아개념 중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유의미한 활동이 됨을 확인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이미자, 2012). 주로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많은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이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탈피하여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 있다(이순자, 2007).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줄어 들기 때문에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류시영·강방훈, 2012).

둘째,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어느정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가는 바로 청소년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관심이나 미래관 등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많은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은숙(2004)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김형심(2007)의 경우도 청소년이 문화활동을 자주 접하고 스스로 공연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향후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데, 이러한 진로정체성을 기초로 명확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아영(2010)에 따르면, 진로성숙에 대해 체험활동은 진로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단연구를 통한 다각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이미자(2012)에 따르면, 동아리활동의 경우, 타인과 같이 교류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전시켜나가는 좋은 의미의 활동이 되며, 더 나아가서 단순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진로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부가하여 자신이 앞으로 해 보고 싶은 활동으로 이어져 직업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체험활동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삶의 목표에 대한 설정을 전제로 한다. 체험활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송재홍(2003)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계획성과 정규성, 그리고 교육과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덕성과 사회성, 자아정체성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 청소년 체험활동과 사회적 발달

청소년은 자아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집단에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 등을 습득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가족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집단생활을 통해 새로운 발달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집단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즉, 청소년은 집단활동을 통해 안정감과 관대함, 이해력의 발달, 사회적 기술의 획득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김인숙(2009)에 따르면,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여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리더십 향상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활동이며,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발달을 친구관계, 학교생활,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에게 친구관계는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행동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친구나 또래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점에서 친구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친구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청소년들에게 더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유형순(2009)은 동아리 자원봉사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더불어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대인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둘째,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며,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응여부는 향후 성공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내 폭력이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문제로 인해 학교부적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학업 중단 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학교, 특히 중학교는 청소년이 기존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체험활동의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력의 향상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체험활동 영역별로 학교생활 적응력에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모두에서 체험활동을 경험한 집단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고관우·남진열, 2011).

셋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는 청소년기 이성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성, 사회적 역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광호, 2005). 특히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인식의 증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민정(2010)의 경우 청소년기의 사회참여 경험은 성년기 사회참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고등학교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높을수록 민주적 기본질서 이해와 절차의 준수, 인간존엄성, 사회참여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청소년활동 중 참여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시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철, 2011). 또한 봉사활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활동에 따른

만족이 높을 때 청소년들의 사회성에 차이가 나타났고(김덕주, 2009), 결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체험활동이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김성민, 2003). 이처럼 청소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과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의 형성에 체험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배천웅·남혜선, 201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자아인식이나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일정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나 조사가 자원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 몇몇 활동 영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체험활동 참여가 지닌 효과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전국적 규모가 아니라 일부지역이나 교급,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청소년체험활동에 대한 참여가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과 같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 3 장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정도 변화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집단 구분

제 3 장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정도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 변화

9개 체험활동 영역별로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의 참여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3년 평균 참여율의 경우 봉사활동(56.8%), 직업체험활동(27.1%), 건강·보건활동(20.9%)이 상대적으로 높게, 교류활동의 참여율이 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9개 체험활동 영역 전체의 평균 참여율은 중학교 1학년 시점에는 26.8%였으나 중학교 3학년 시점은 17.0%로 급감하였고, 3년간 평균 참여율 20.6%로 나타났다<표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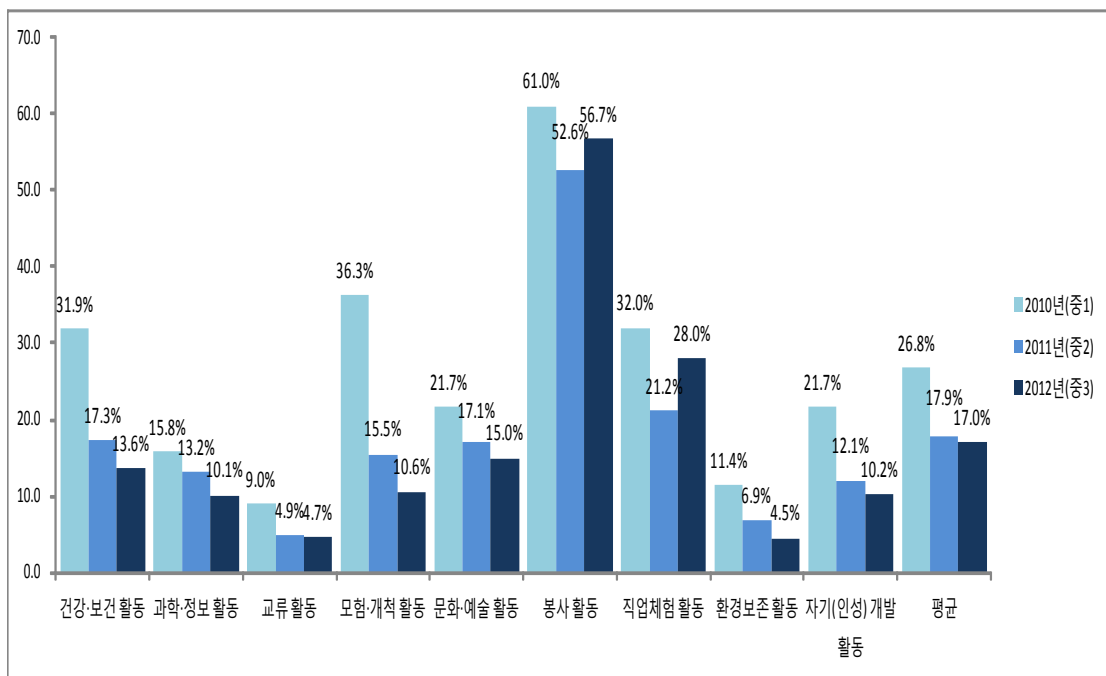
표 III-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3년 평균
건강·보건 활동	31.9	17.3	13.6	20.9
과학·정보 활동	15.8	13.2	10.1	13.0
교류 활동	9.0	4.9	4.7	6.2
모험·개척 활동	36.3	15.5	10.6	20.8
문화·예술 활동	21.7	17.1	15.0	17.9
봉사 활동	61.0	52.6	56.7	56.8
직업체험 활동	32.0	21.2	28.0	27.1
환경보존 활동	11.4	6.9	4.5	7.6
자기(인성) 개발 활동	21.7	12.1	10.2	14.7
평균	26.8	17.9	17.0	20.6

한편, 9개 체험활동 영역별 3년간의 참여율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9개 활동 영역이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III-1].

다만, 봉사활동(2010년 61.0%, 2011년 52.6%, 2012년 56.7%)과 직업체험활동(32.0%, 21.2%, 28.0%)은 2011년에 감소했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9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즉, 봉사활동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일 때 100명 중 61명이 참여했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는 53명 정도가, 3학년에서는 56명 정도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 외의 건강·보건활동(31.9%, 17.3%, 13.6%), 과학·정보활동(15.8%, 13.2%, 10.1%), 교류활동(9.0%, 4.9%, 4.7%), 모험·개척활동(36.3%, 15.5%, 10.6%), 문화·예술활동(21.7%, 17.1%, 15.0%), 환경보존활동(11.4%, 6.9%, 4.5%), 자기(인성)개발활동(21.7%, 12.1%, 10.2%)은 3년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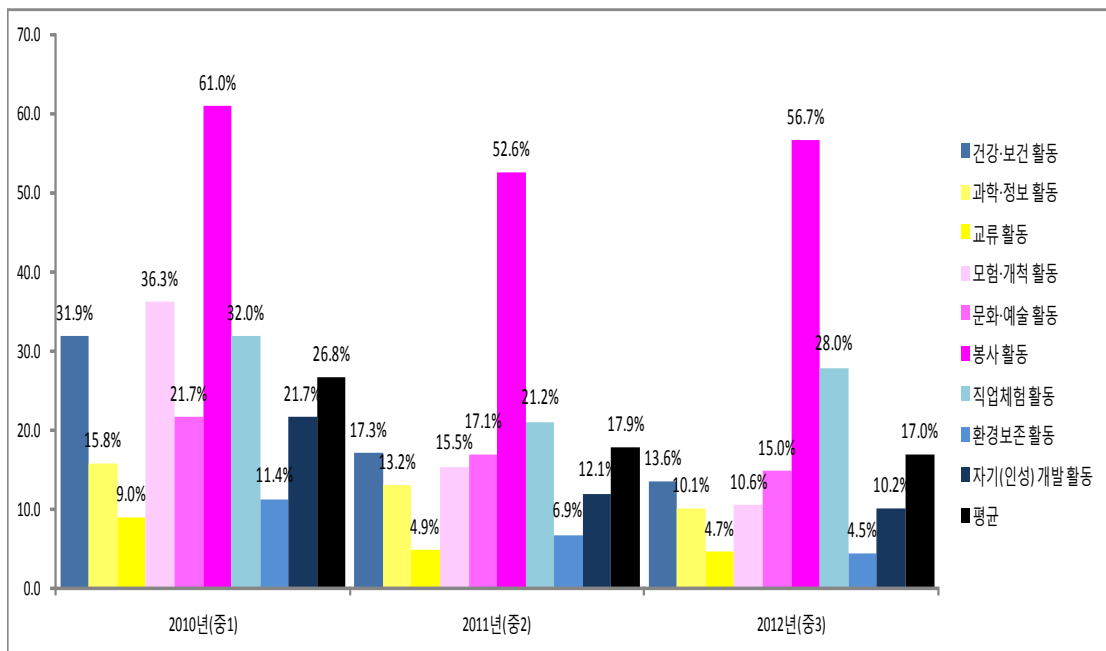


[그림 III-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율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로 3년간 평균 참여율과 변화 추이에서 보여지는 특징의 주요 원인은 중학생의 봉사활동 의무화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진로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모험개척활동의 참여율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학년별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1학년 시절에는 봉사활동, 모험개척활동, 건강보건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중학교 2학년 시절에는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이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봉사활동과 직업체험활동 이외에는 15% 이하의 참여율을 보였다[그림 III-2].



[그림 III-2]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율 변화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성별 참여율 변화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간의 청소년 성별 평균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남자 22.7%, 여자 19.1%), 과학·정보활동(남자 14.8%, 여자 11.3%), 환경·보존활동(남자 7.8%, 여자 7.4%)은 남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2>.

그러나 그 외의 교류활동(남자 5.7%, 여자 6.8%), 모험·개척활동(남자 19.9%, 여자 21.8%), 문화·예술활동(남자 15.4%, 여자 20.5%), 봉사활동(남자 54.4%, 여자 59.2%), 직업·체험활동(남자 22.4%, 여자 31.9%), 자기(인성)개발활동(남자 13.0%, 여자 16.3%)은 여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업체험활동의 경우 그 차이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3년 평균
영역	성별				
건강·보건 활동 (평균 : 20.9)	남자	34.4	19.4	14.2	22.7
	여자	29.3	15.1	13.0	19.1
과학·정보 활동 (평균 : 13.0)	남자	17.9	14.8	11.6	14.8
	여자	13.6	11.6	8.6	11.3
교류 활동 (평균 : 6.2)	남자	9.1	4.3	3.6	5.7
	여자	8.9	5.6	5.9	6.8
모험·개척 활동 (평균 : 20.8)	남자	36.3	13.8	9.6	19.9
	여자	36.3	17.3	11.7	21.8
문화·예술 활동 (평균 : 17.9)	남자	17.5	16.0	12.8	15.4
	여자	25.9	18.3	17.2	20.5
봉사 활동 (평균 : 56.8)	남자	56.4	51.5	55.4	54.4
	여자	65.7	53.8	58.0	59.2
직업체험 활동 (평균 : 27.1)	남자	26.4	18.0	22.7	22.4
	여자	37.8	24.5	33.5	31.9
환경보존 활동 (평균 : 7.6)	남자	11.7	7.6	4.1	7.8
	여자	11.1	6.2	4.9	7.4
자기(인성) 개발 활동 (평균 : 14.7)	남자	18.6	11.3	9.1	13.0
	여자	24.8	12.9	11.3	16.3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율 변화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간의 청소년 거주지의 도시규모별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서울 24.5%, 광역시 20.8%, 시군구 20.6%), 과학·정보활동(서울 16.1%, 광역시 13.5%, 시군구 12.4%), 문화·예술활동(서울 20.7%, 광역시 17.9%, 시군구 17.6%), 직업체험활동(서울 34.4%, 광역시 28.0%, 시군구 25.3%)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

표 III-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영역	도시규모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3년 평균
건강보건 활동 (평균 : 20.9)	서울	38.6	18.8	16.2	24.5
	광역시	31.3	18.1	12.9	20.8
	시군구	31.8	16.6	13.5	20.6
과학·정보 활동 (평균 : 13.0)	서울	19.3	16.2	12.7	16.1
	광역시	15.4	14.2	10.8	13.5
	시군구	15.3	12.4	9.4	12.4
교류 활동 (평균 : 6.2)	서울	11.2	4.6	4.6	6.8
	광역시	7.8	4.1	3.9	5.3
	시군구	9.4	5.4	5.2	6.7
모험·개척 활동 (평균 : 20.8)	서울	21.8	10.7	6.6	13.0
	광역시	35.8	14.1	11.0	20.3
	시군구	39.5	17.2	11.2	22.6
문화·예술 활동 (평균 : 17.9)	서울	24.9	15.2	21.9	20.7
	광역시	21.2	17.2	15.4	17.9
	시군구	21.5	17.4	13.9	17.6
봉사 활동 (평균 : 56.8)	서울	73.6	67.0	71.1	70.6
	광역시	54.6	45.7	47.9	49.4
	시군구	62.8	54.3	59.3	58.8
직업체험 활동 (평균 : 27.1)	서울	42.6	23.4	37.2	34.4
	광역시	33.9	21.6	28.4	28.0
	시군구	28.9	20.4	26.5	25.3
환경보존 활동 (평균 : 7.6)	서울	20.8	12.8	6.6	13.4
	광역시	11.2	5.0	4.6	6.9
	시군구	10.1	7.0	3.9	7.0
자기(인성) 개발 활동 (평균 : 14.7)	서울	32.5	21.8	18.3	24.2
	광역시	20.1	10.4	9.2	13.2
	시군구	21.0	11.2	9.1	13.8

또한 교류활동(서울 6.8%, 광역시 5.3%, 시군구 6.7%), 봉사활동(서울 70.6%, 광역시 49.4%, 시군구 58.8%), 환경보존활동(서울 13.4%, 광역시 6.9%, 시군구 7.0%), 자기(인성)개발활동(서울 24.2%, 광역시 13.2%, 시군구 13.8%)은 서울, 시군구, 광역시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환경보존활동과 자기(인성)개발활동의 광역시, 시군구 참여율의 차이는 0.1%p, 0.6%p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험·개척활동(서울 13.0%, 광역시 20.3%, 시군구 22.6%)은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대부분의 체험활동 영역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율 변화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9개 활동 영역 모두에서 가구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

즉, 중학생 3년간 건강·보건활동(상 21.6%, 중 21.0%, 하 20.8%), 과학·정보활동(상 16.9%, 중 11.7%, 하 11.3%), 교류활동(상 7.0%, 중 5.8%, 하 5.4%), 모험·개척활동(상 21.5%, 중 21.5%, 하 17.9%), 문화·예술활동(상 19.9%, 중 17.5%, 하 15.4%), 봉사활동(상 60.4%, 중 56.3%, 하 52.0%), 직업체험활동(상 29.8%, 중 25.9%, 하 24.9%), 환경보존활동(상 9.1%, 중 7.3%, 하 5.6%), 자기(인성)개발활동(상 17.0%, 중 13.9%, 하 12.5%) 9개의 영역 모두 가구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율 변화 (단위 : %)

구분 영역	소득규모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3년 평균
건강·보건 활동 (평균 : 20.9)	상	34.1	15.8	14.8	21.6
	중	31.9	18.1	13.1	21.0
	하	31.0	17.6	13.8	20.8
과학·정보 활동 (평균 : 13.0)	상	20.1	16.8	13.7	16.9
	중	14.7	12.0	8.4	11.7
	하	10.7	12.8	10.3	11.3
교류 활동 (평균 : 6.2)	상	10.3	5.7	5.1	7.0
	중	8.4	4.5	4.5	5.8
	하	8.6	4.5	3.1	5.4
모험·개척 활동 (평균 : 20.8)	상	33.9	18.6	12.1	21.5
	중	38.1	15.1	11.3	21.5
	하	36.2	12.4	5.2	17.9
문화·예술 활동 (평균 : 17.9)	상	24.3	18.3	17.2	19.9
	중	20.8	17.4	14.2	17.5
	하	20.0	12.4	13.8	15.4
봉사 활동 (평균 : 56.8)	상	65.7	56.1	59.4	60.4
	중	59.7	51.8	57.3	56.3
	하	56.6	49.0	50.3	52.0
직업체험 활동 (평균 : 27.1)	상	36.7	24.3	28.3	29.8
	중	29.8	20.0	27.9	25.9
	하	28.6	17.6	28.6	24.9
환경보존 활동 (평균 : 7.6)	상	13.1	8.2	5.9	9.1
	중	11.1	6.9	3.8	7.3
	하	9.3	3.8	3.8	5.6
자기(인성) 개발 활동 (평균 : 14.7)	상	26.8	12.9	11.4	17.0
	중	19.6	12.1	9.9	13.9
	하	20.3	9.7	7.6	12.5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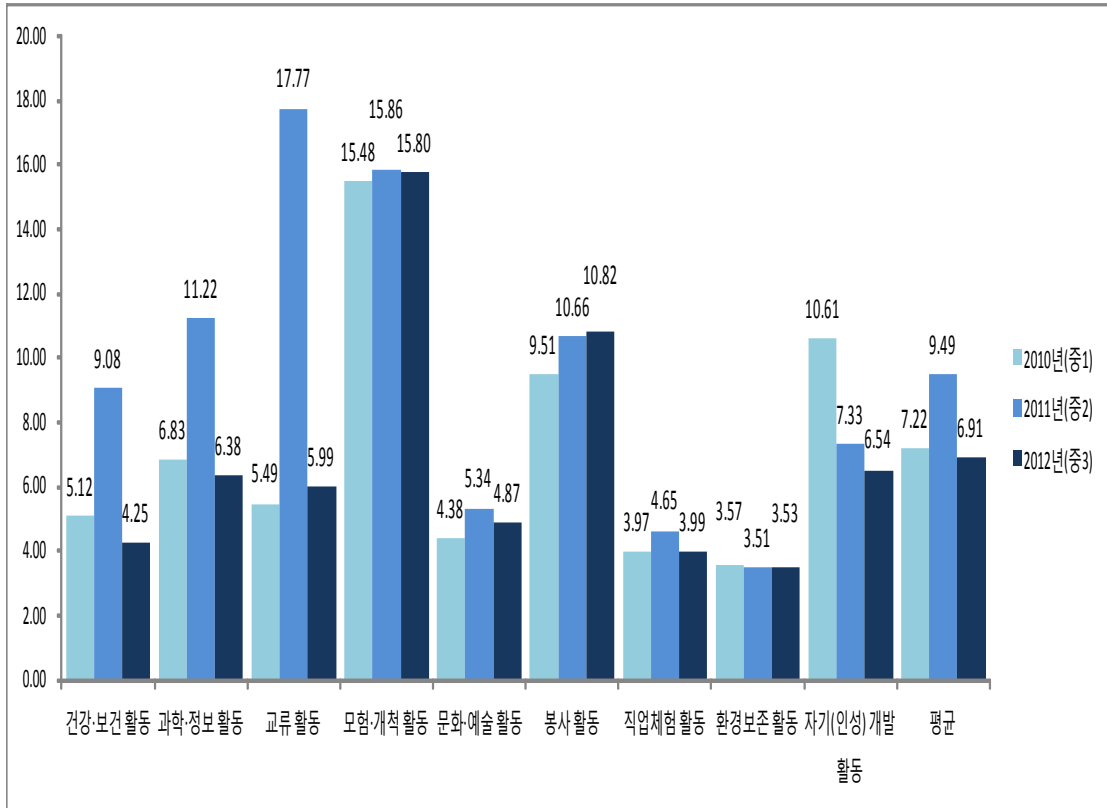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 동안 총 참여시간의 1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1학년(2010년)에는 1개 영역별로 평균 7.22시간, 중학교 2학년에는 평균 9.49시간, 중학교 3학년(2012년)에는 6.91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II-5>.

표 III-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699	5.12	7.53	384	9.08	28.88	292	4.25	6.49
과학·정보 활동	346	6.83	10.89	293	11.22	27.11	215	6.38	11.05
교류 활동	195	5.49	10.46	109	17.77	39.79	89	5.99	8.79
모험·개척 활동	791	15.48	13.08	344	15.86	24.00	223	15.80	16.99
문화·예술 활동	474	4.38	5.72	380	5.34	9.53	318	4.87	6.84
봉사 활동	1,346	9.51	9.15	1,168	10.66	11.54	1,240	10.82	9.52
직업체험 활동	702	3.97	5.94	471	4.65	7.99	607	3.99	4.50
환경보존 활동	249	3.57	5.73	154	3.51	5.06	95	3.53	5.22
자기 개발 활동	472	10.61	12.10	270	7.33	12.62	217	6.54	8.95
평균	586.00	7.22	8.96	397.00	9.49	18.50	366.22	6.91	8.71

체험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봉사활동(2010년 9.51시간, 2011년 10.66시간, 2012년 10.82시간)은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험·개척활동(15.48시간, 15.86시간, 15.80시간)과 환경보존활동(3.57시간, 3.51시간, 3.53시간)은 3년간 참여시간 변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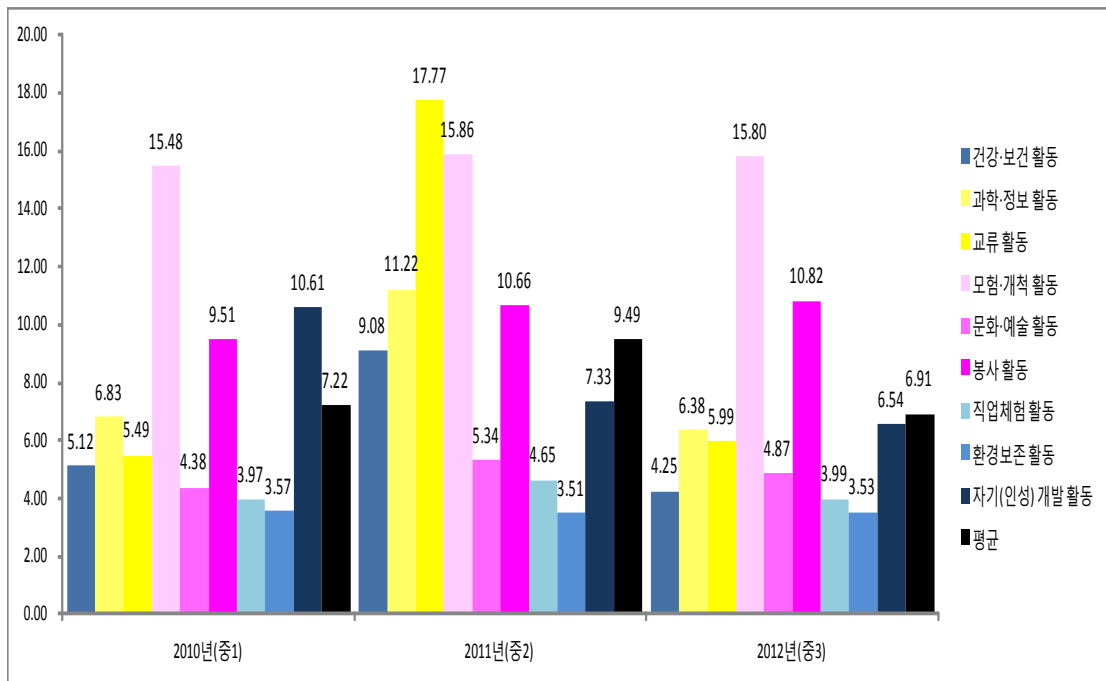


[그림 III-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시간 변화

반면, 건강·보건활동(5.12시간, 9.08시간, 4.25시간), 과학·정보활동(6.83시간, 11.22시간, 6.38시간), 교류활동(5.49시간, 17.77시간, 5.99시간), 문화·예술활동(4.38시간, 5.34시간, 4.87시간), 직업체험활동(3.97시간, 4.65시간, 3.99시간), 자기개발활동(10.61시간, 7.33시간, 6.54시간)은 중학교 1학년보다 2학년에 참여시간이 높아졌다가 3학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참여율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모험개척활동의 참여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봉사활동, 교류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참여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3년간 학년별로 체험활동 참여시간을 비교해 보면, 앞서 살펴본 참여율이나 학년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중학교 3년간 모험개척활동 참여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봉사활동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4].



[그림 III-4] 학년별 체험활동 참여시간 변화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성별 참여시간 변화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의 성별 3년간 평균 참여시간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남자 7.26시간, 여자 4.73시간), 과학·정보활동(남자 8.96시간, 여자 7.02시간), 봉사활동(남자 10.45시간, 여자 10.21시간), 환경보존활동(남자 4.08시간, 여자 2.98시간)은 남자 청소년의 참여시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6>.

반면에 교류활동(남자 8.26시간, 여자 11.08시간), 모험·개척활동(남자 15.40시간, 여자 16.04시간), 문화·예술활동(남자 4.63시간, 여자 5.04시간), 직업체험활동(남자 4.13시간, 여자 4.26시간), 자기개발활동(남자 7.43시간, 여자 8.78시간)은 여자 청소년의 참여시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남자 : 7.26, 여자 : 4.73)	남자	382	5.67	7.88	218	11.55	36.89	158	4.56	6.85
	여자	317	4.47	7.04	166	5.83	11.29	134	3.90	6.03
	소계	699	5.12	7.53	384	9.08	28.88	292	4.25	6.49
과학·정보 활동 (남자 : 8.96, 여자 : 7.02)	남자	197	7.40	11.72	166	12.09	32.23	128	7.39	12.36
	여자	149	6.07	9.67	127	10.09	18.44	87	4.89	8.63
	소계	346	6.83	10.89	293	11.22	27.11	215	6.38	11.05
교류 활동 (남자 : 8.26, 여자 : 11.08)	남자	101	4.45	8.86	48	12.94	34.06	36	7.39	10.07
	여자	94	6.62	11.88	61	21.57	43.68	53	5.04	7.77
	소계	195	5.49	10.46	109	17.77	39.79	89	5.99	8.79
모험·개척 활동 (남자 : 15.40, 여자 : 16.04)	남자	397	14.55	12.35	155	17.16	28.10	104	14.50	17.00
	여자	394	16.41	13.73	189	14.79	20.04	119	16.93	16.97
	소계	791	15.48	13.08	344	15.86	24.00	223	15.80	16.99
문화·예술 활동 (남자 : 4.63, 여자 : 5.04)	남자	195	4.11	4.72	181	5.26	8.84	138	4.51	5.42
	여자	279	4.57	6.32	199	5.41	10.14	180	5.15	7.75
	소계	474	4.38	5.72	380	5.34	9.53	318	4.87	6.83
봉사 활동 (남자 : 10.45, 여자 : 10.21)	남자	630	9.42	9.61	578	10.61	9.75	619	11.32	10.00
	여자	716	9.58	8.73	590	10.71	13.06	621	10.33	8.99
	소계	1,346	9.51	9.15	1,168	10.66	11.54	1,240	10.82	9.51
직업체험 활동 (남자 : 4.13, 여자 : 4.26)	남자	292	3.98	5.73	203	4.43	7.47	251	3.98	5.23
	여자	410	3.97	6.09	268	4.82	8.37	356	3.99	3.91
	소계	702	3.97	5.94	471	4.65	7.99	607	3.99	4.50
환경보존 활동 (남자 : 4.08, 여자 : 2.98)	남자	128	3.80	6.29	86	4.07	5.90	45	4.36	7.21
	여자	121	3.34	5.08	68	2.81	3.65	50	2.78	2.07
	소계	249	3.57	5.73	154	3.51	5.06	95	3.53	5.22
자기개발 활동 (남자 : 7.43, 여자 : 8.78)	남자	203	10.36	13.36	128	7.35	12.98	101	4.58	4.30
	여자	269	10.80	11.07	142	7.30	12.33	116	8.25	11.32
	소계	472	10.61	12.10	270	7.33	12.62	217	6.54	8.95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간의 청소년의 참여시간을 도시규모별로 3년 평균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서울 5.09시간, 광역시 6.07시간, 시군구 6.52시간), 교류활동(서울 6.46시간, 광역시 8.81시간, 시군구 10.56시간), 문화·예술활동(서울 3.73시간, 광역시 4.76시간, 시군구 5.09시간), 봉사활동(서울 8.64시간, 광역시 10.25시간, 시군구 10.75시간), 환경보존활동(서울 2.43시간, 광역시 3.45시간, 시군구 4.05시간)은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참여시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또한 과학정보활동(서울 9.37시간, 광역시 7.39시간, 시군구 8.55시간)과 직업체험활동(서울 4.16시간, 광역시 3.45시간, 시군구 4.78시간)은 광역시의 참여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험·개척활동(서울 10.66시간, 광역시 16.42시간, 시군구 15.88시간)과 자기개발활동(서울 8.79시간, 광역시 8.98시간, 시군구 7.53시간)은 광역시의 참여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서울 : 5.09, 광역시 : 6.07, 시군구 : 6.52)	서울	75	5.21	8.73	37	6.03	14.13	31	4.03	4.62
	광역시	215	6.48	8.78	127	8.01	14.13	87	3.71	5.72
	시군구	399	4.31	6.31	210	10.55	36.97	166	4.71	7.25
	소계	689	5.09	7.50	374	9.24	29.24	284	4.33	6.56
과학·정보 활동 (서울 : 9.37, 광역시 : 7.39, 시군구 : 8.55)	서울	37	6.68	8.24	32	9.59	14.09	24	11.83	18.91
	광역시	105	5.09	6.53	100	11.81	36.62	73	5.26	8.04
	시군구	192	8.10	13.17	157	11.41	21.95	113	6.13	10.49
	소계	334	7.00	11.04	289	11.35	27.27	210	6.48	11.15
교류 활동 (서울 : 6.46, 광역시 : 8.81, 시군구 : 10.56)	서울	22	2.95	2.21	9	12.56	23.51	8	3.88	2.23
	광역시	52	5.71	7.98	29	13.90	37.61	22	6.82	8.42
	시군구	116	5.82	12.21	68	19.63	42.63	56	6.23	9.68
	소계	190	5.46	10.45	106	17.46	39.84	86	6.16	8.89
모험·개척 활동 (서울 : 10.66, 광역시 : 16.42,	서울	40	10.13	11.67	21	13.95	17.32	10	7.90	6.86
	광역시	247	14.09	13.22	99	15.09	19.88	71	20.07	20.07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시군구 : 15.88)	시군구	493	16.70	13.03	217	16.72	26.51	138	14.21	15.20
	소계	780	15.54	13.13	337	16.07	24.20	219	15.82	16.94
문화·예술 활동 (서울 : 3.73, 광역시 : 4.76, 시군구 : 5.09)	서울	49	2.90	2.08	30	4.17	5.27	41	4.12	4.57
	광역시	148	4.59	5.01	120	4.60	8.79	105	5.10	7.33
	시군구	266	4.63	6.55	220	5.79	9.83	166	4.86	7.04
	소계	463	4.43	5.77	370	5.27	9.21	312	4.84	6.86
봉사 활동 (서울 : 8.64, 광역시 : 10.25, 시군구 : 10.75)	서울	143	8.59	6.77	132	8.69	6.79	137	8.64	7.93
	광역시	383	8.56	8.16	320	10.29	10.72	334	11.89	10.71
	시군구	789	10.16	9.86	688	11.39	12.69	738	10.70	8.99
	소계	1,315	9.52	9.12	1,140	10.77	11.63	1,209	10.79	9.43
직업체험 활동 (서울 : 4.16, 광역시 : 3.45, 시군구 : 4.78)	서울	84	3.07	2.62	46	5.48	6.56	69	3.94	3.76
	광역시	237	3.28	3.07	151	3.41	3.40	192	3.67	3.82
	시군구	357	4.73	7.76	259	5.36	10.01	332	4.24	5.03
	소계	678	4.02	6.03	456	4.73	8.11	593	4.02	4.53
환경보존 활동 (서울 : 2.43, 광역시 : 3.45, 시군구 : 4.05)	서울	40	2.10	0.98	25	2.56	1.47	13	2.62	2.10
	광역시	77	3.04	4.75	35	4.51	8.48	30	2.80	2.06
	시군구	127	4.31	6.88	89	3.43	3.91	47	4.40	7.06
	소계	244	3.55	5.70	149	3.54	5.13	90	3.61	5.34
자기(인성) 개발 활동 (서울 : 8.79, 광역시 : 8.98, 시군구 : 7.53)	서울	64	12.45	12.01	43	5.79	7.11	34	8.12	10.31
	광역시	139	11.17	11.82	73	7.51	15.01	61	8.25	12.44
	시군구	258	9.77	12.36	142	7.56	12.55	112	5.26	5.61
	소계	461	10.57	12.16	258	7.25	12.58	207	6.61	9.01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시간을 3년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정보활동(상 11.52시간, 중 6.72시간, 하 3.93시간), 교류활동(상 10.65시간, 중 10.64시간, 하 4.81시간), 문화·예술활동(상 5.14시간, 중 4.87시간, 하 4.22시간), 봉사활동(상 10.88시간, 중 10.33시간, 하 9.20시간)은 가구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보건활동(상 5.74시간, 중 5.89시간, 하 8.70시간)은 가구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참여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8>.

표 III-8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시간 변화 (단위 : 시간)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소득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상 : 5.74, 중 : 5.89, 하 : 8.70)	상	203	5.71	8.85	97	7.13	11.26	87	4.37	5.80
	중	385	4.90	7.05	222	8.23	24.42	155	4.55	7.44
	하	90	4.67	6.33	50	18.40	58.87	38	3.03	3.60
	소계	678	5.11	7.55	369	9.32	29.43	280	4.29	6.55
과학·정보 활동 (상 : 11.52, 중 : 6.72, 하 : 3.93)	상	119	8.02	11.43	103	17.02	33.71	78	9.53	15.49
	중	178	6.75	11.54	146	8.83	23.86	101	4.58	6.23
	하	31	3.97	4.05	37	3.65	5.84	28	4.18	8.87
	소계	328	6.95	11.05	286	11.11	26.89	207	6.39	11.17
교류 활동 (상 : 10.65, 중 : 10.64, 하 : 4.81)	상	59	6.71	12.54	35	17.94	28.55	24	7.29	9.16
	중	101	5.41	10.35	54	20.09	50.17	48	6.42	9.79
	하	25	3.40	4.81	13	8.15	16.75	8	2.88	3.09
	소계	185	5.55	10.58	102	17.83	40.54	80	6.33	9.15
모험·개척 활동 (상 : 14.76, 중 : 16.72, 하 : 15.11)	상	199	14.94	11.52	114	15.46	20.60	69	13.88	15.48
	중	459	16.27	13.86	183	17.05	27.31	131	16.83	17.74
	하	104	14.35	13.08	36	13.78	18.70	15	17.20	18.31
	소계	762	15.66	13.19	333	16.15	24.32	215	15.91	17.06
문화·예술 활동 (상 : 5.14, 중 : 4.87, 하 : 4.22)	상	144	4.35	4.20	112	5.63	9.12	99	5.44	7.40
	중	251	4.71	6.49	211	5.35	10.01	168	4.55	6.26
	하	58	3.67	6.24	36	4.14	4.36	38	4.84	8.43
	소계	453	4.46	5.82	359	5.31	9.30	305	4.88	6.93
봉사 활동 (상 : 10.88, 중 : 10.33, 하 : 9.20)	상	396	9.71	9.43	344	11.51	11.80	353	11.42	9.03
	중	726	9.58	8.82	632	10.88	12.13	694	10.52	9.25
	하	164	8.65	9.68	142	8.29	7.82	143	10.66	10.61
	소계	1,286	9.50	9.12	1,118	10.75	11.60	1,190	10.80	9.36
직업체험 활동 (상 : 4.56, 중 : 4.05, 하 : 4.14)	상	222	4.36	6.39	149	5.39	10.55	169	3.93	5.52
	중	359	4.03	6.21	245	4.09	5.54	331	4.03	4.19
	하	82	3.24	4.51	51	4.86	7.57	81	4.31	3.91
	소계	663	4.04	6.09	445	4.61	7.79	581	4.04	4.58
환경보존 활동 (상 : 3.44, 중 : 3.89, 하 : 2.66)	상	77	4.10	8.07	50	3.74	5.99	34	2.47	1.48
	중	134	3.47	4.58	85	3.55	4.97	44	4.66	7.35
	하	27	2.26	1.48	11	2.73	2.20	10	3.00	2.21
	소계	238	3.54	5.76	146	3.55	5.18	88	3.63	5.40
자기개발 활동 (상 : 7.42, 중 : 8.79, 하 : 6.94)	상	163	10.59	10.65	79	6.51	9.12	66	5.17	5.85
	중	232	11.05	13.32	148	7.81	14.63	117	7.50	10.18
	하	57	9.39	12.05	28	6.93	9.70	22	4.50	4.53
	소계	452	10.67	12.24	255	7.31	12.64	205	6.43	8.57

또한 모험·개척활동(상 14.76시간, 중 16.72시간, 하 15.11시간), 환경보존활동(상 3.44시간, 중 3.89시간, 하 2.66시간), 자기개발활동(상 7.42시간, 중 8.79시간, 하 6.94시간)은 소득규모 중→상→하 집단의 순으로 참여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체험활동(상 4.56시간, 중 4.05시간, 하 4.14시간)은 상→하→중 집단의 순으로 참여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 참여 만족도 변화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로 조사 대상 청소년의 2010년(중학교 1학년), 2011년(중학교 2학년), 2012년(중학교 3학년)의 참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은 3.16, 2학년은 2011년 3.20, 3학년에는 2012년 3.23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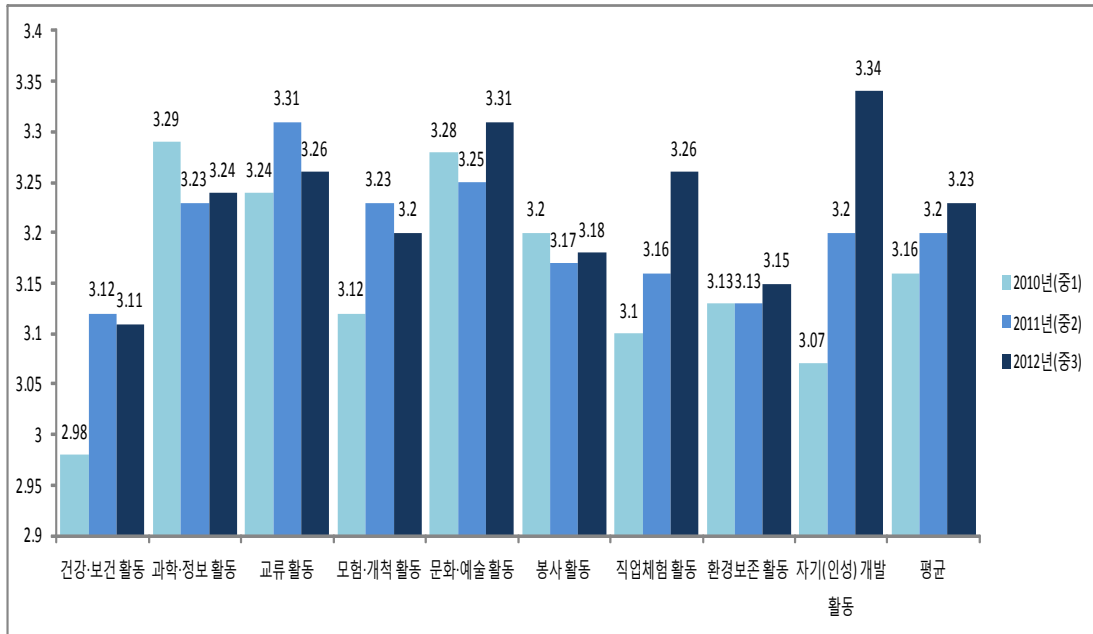
표 III-9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709	2.98	0.68	385	3.12	0.64	297	3.11	0.68
과학·정보 활동	351	3.29	0.65	292	3.23	0.65	218	3.24	0.61
교류 활동	199	3.24	0.71	109	3.31	0.69	99	3.26	0.66
모험·개척 활동	794	3.12	0.76	344	3.23	0.69	229	3.20	0.72
문화·예술 활동	474	3.28	0.67	381	3.25	0.62	321	3.31	0.61
봉사 활동	1,338	3.20	0.68	1,168	3.17	0.64	1,210	3.18	0.65
직업체험 활동	707	3.10	0.74	470	3.16	0.65	586	3.26	0.65
환경보존 활동	246	3.13	0.70	154	3.13	0.71	96	3.15	0.62
자기 개발 활동	473	3.07	0.76	270	3.20	0.70	215	3.34	0.62
전체	5,291	3.16	0.71	3,573	3.20	0.67	3,271	3.23	0.65

9개 체험활동 영역별로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직업체험활동(2010년 3.10, 2011년 3.16, 2012년 3.26)과 자기개발활동(2010년 3.07, 2011년 3.2, 2012년 3.34)은 3년간 계속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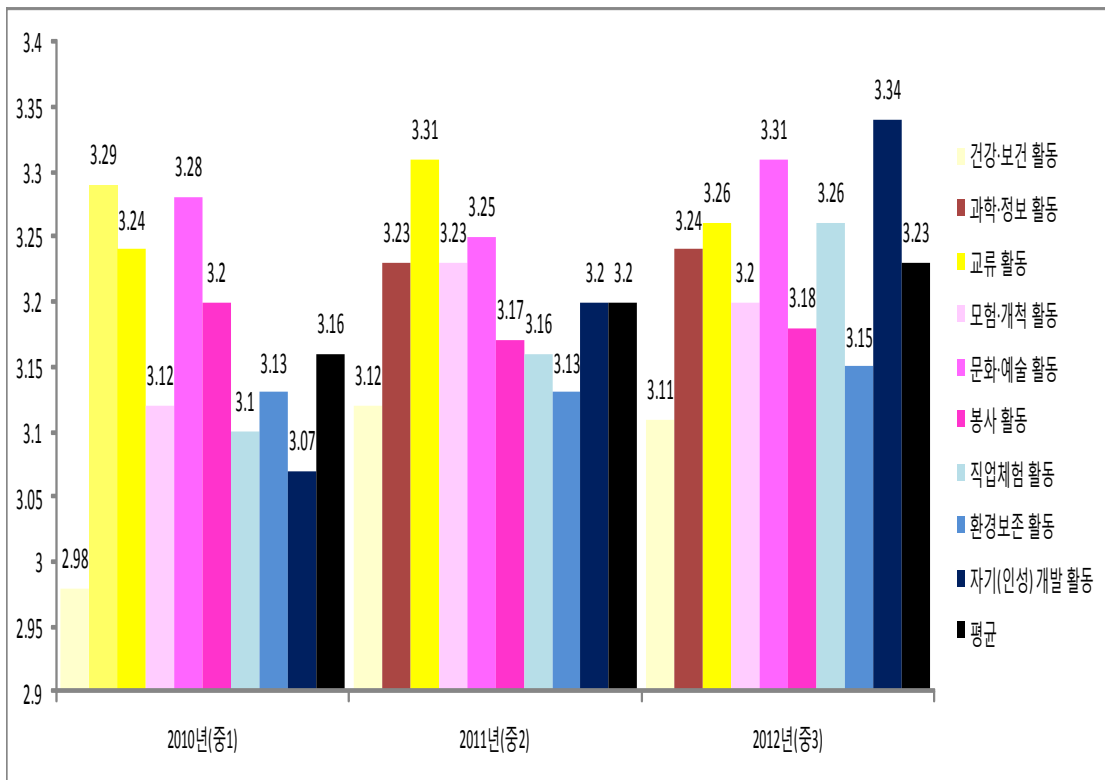
또한 건강·보건활동(2010년 2.98, 2011년 3.12, 2012년 3.11), 교류활동(2010년 3.24, 2011년 3.31, 2012년 3.26), 모험·개척활동(2010년 3.12, 2011년 3.23, 2012년 3.2)은 2011년에 만족도가 높아졌다가 2012년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정보활동(2010년 3.29, 2011년 3.23, 2012년 3.24), 문화·예술활동(2010년 3.28, 2011년 3.25, 2012년 3.31), 봉사활동(2010년 3.2, 2011년 3.17, 2012년 3.18)은 2011년에 만족도가 낮아졌다가 2012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5].



[그림 Ⅲ-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중학교 3년간 학년별로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만족도 변화를 보면, 자기(인성) 개발 활동의 만족도가(2010년 3.07, 2011년 3.2, 2012년 3.34)로 꾸준히 증가한다. 또한, 3년간 과학·정보 활동(2010년 3.29, 2011년 3.23, 2012년 3.24), 교류활동(2010년 3.24, 2011년 3.31, 2012년 3.26), 문화·예술 활동(2010년 3.28, 2011년 3.25, 2012년 3.31)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6].



[그림 III-6] 학년별 청소년의 참여 만족도 변화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만족도 변화

건강·보건활동(남자 3.11, 여자 3.02), 과학·정보활동(남자 3.28, 여자 3.22), 모험·개척활동(남자 3.23, 여자 3.14), 직업·체험활동(남자 3.18, 여자 3.17)은 남자의 참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류활동(남자 3.25, 여자 3.29), 문화·예술활동(남자 3.22, 여자 3.33), 봉사활동(남자 3.14, 여자 3.22), 환경·보존활동(남자 3.13, 여자 3.15), 자기개발활동(남자 3.18, 여자 3.22)은 여자의 참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10>.

표 III-10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성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남자 : 3.11, 여자 : 3.02)	남자	387	3.01	0.75	219	3.20	0.65	159	3.13	0.64
	여자	322	2.95	0.59	166	3.01	0.60	138	3.09	0.72
	소계	709	2.98	0.68	385	3.12	0.64	297	3.11	0.68
과학·정보 활동 (남자 : 3.28, 여자 : 3.22)	남자	201	3.32	0.68	167	3.23	0.66	130	3.28	0.68
	여자	150	3.26	0.61	125	3.22	0.63	88	3.17	0.48
	소계	351	3.29	0.65	292	3.23	0.65	218	3.24	0.61
교류 활동 (남자 : 3.25, 여자 : 3.29)	남자	102	3.25	0.73	48	3.19	0.76	39	3.31	0.69
	여자	97	3.23	0.68	61	3.41	0.62	60	3.23	0.65
	소계	199	3.24	0.71	109	3.31	0.69	99	3.26	0.66
모험·개척 활동 (남자 : 3.23, 여자 : 3.14)	남자	404	3.16	0.80	156	3.33	0.72	105	3.21	0.73
	여자	390	3.08	0.72	188	3.14	0.65	124	3.19	0.71
	소계	794	3.12	0.76	344	3.23	0.69	229	3.20	0.72
문화·예술 활동 (남자 : 3.22, 여자 : 3.33)	남자	195	3.25	0.73	181	3.17	0.68	140	3.24	0.64
	여자	279	3.31	0.62	200	3.32	0.55	181	3.36	0.59
	소계	474	3.28	0.67	381	3.25	0.62	321	3.31	0.61
봉사 활동 (남자 : 3.14, 여자 : 3.22)	남자	628	3.15	0.71	579	3.13	0.64	599	3.14	0.68
	여자	710	3.24	0.64	589	3.22	0.64	611	3.21	0.62
	소계	1338	3.20	0.68	1168	3.17	0.64	1210	3.18	0.65
직업·체험 활동 (남자 : 3.18, 여자 : 3.17)	남자	294	3.11	0.74	203	3.19	0.66	244	3.24	0.71
	여자	413	3.09	0.74	267	3.15	0.65	342	3.27	0.60
	소계	707	3.10	0.74	470	3.16	0.65	586	3.26	0.65
환경보존 활동 (남자 : 3.13, 여자 : 3.15)	남자	127	3.13	0.76	86	3.07	0.72	43	3.19	0.59
	여자	119	3.14	0.63	68	3.21	0.70	53	3.11	0.64
	소계	246	3.13	0.70	154	3.13	0.71	96	3.15	0.62
자기개발 활동 (남자 : 3.18, 여자 : 3.22)	남자	204	3.06	0.83	128	3.16	0.74	98	3.31	0.63
	여자	269	3.07	0.72	142	3.23	0.67	117	3.37	0.61
	소계	473	3.07	0.76	270	3.20	0.70	215	3.34	0.62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서울 3.10, 광역시 3.10, 시군구 3.05), 과학·정보활동(서울 3.33, 광역시 3.26, 시군구 3.24), 모험·개척활동(서울 3.34, 광역시 3.21, 시군구 3.16), 봉사활동(서울 3.22, 광역시 3.19, 시군구 3.17)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I-11>.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서울 : 3.10, 광역시 : 3.10, 시군구 : 3.05)	서울	76	2.99	0.72	37	3.30	0.57	32	3.00	0.67
	광역시	220	3.00	0.70	127	3.08	0.72	86	3.21	0.72
	시군구	403	2.97	0.67	211	3.11	0.60	171	3.08	0.67
	소계	699	2.98	0.69	375	3.12	0.64	289	3.11	0.69
과학·정보 활동 (서울 : 3.33, 광역시 : 3.26, 시군구 : 3.24)	서울	38	3.47	0.69	30	3.37	0.56	25	3.16	0.85
	광역시	108	3.21	0.63	100	3.25	0.64	73	3.33	0.53
	시군구	193	3.31	0.64	158	3.20	0.66	115	3.21	0.61
	소계	339	3.30	0.64	288	3.23	0.65	213	3.24	0.62
교류 활동 (서울 : 3.31, 광역시 : 3.21, 시군구 : 3.30)	서울	22	3.32	0.57	9	3.33	0.50	7	3.29	0.49
	광역시	54	3.19	0.68	29	3.28	0.70	25	3.16	0.75
	시군구	118	3.27	0.75	69	3.33	0.72	64	3.31	0.64
	소계	194	3.25	0.71	107	3.32	0.69	96	3.27	0.66
모험·개척 활동 (서울 : 3.34, 광역시 : 3.21, 시군구 : 3.16)	서울	43	3.44	0.63	20	3.25	0.64	12	3.33	0.49
	광역시	247	3.18	0.69	99	3.24	0.69	76	3.20	0.71
	시군구	493	3.06	0.81	219	3.22	0.70	137	3.19	0.75
	소계	783	3.12	0.77	338	3.23	0.69	225	3.20	0.73
문화·예술 활동 (서울 : 3.25, 광역시 : 3.28, 시군구 : 3.29)	서울	49	3.18	0.75	30	3.33	0.55	39	3.23	0.58
	광역시	147	3.27	0.68	121	3.21	0.66	108	3.35	0.59
	시군구	267	3.32	0.66	221	3.25	0.62	168	3.30	0.64
	소계	463	3.29	0.68	372	3.24	0.62	315	3.31	0.61
봉사 활동 (서울 : 3.22, 광역시 : 3.19, 시군구 : 3.17)	서울	145	3.20	0.67	131	3.29	0.66	133	3.16	0.65
	광역시	379	3.19	0.69	320	3.17	0.64	323	3.22	0.63
	시군구	783	3.20	0.67	689	3.17	0.64	724	3.15	0.66
	소계	1307	3.20	0.68	1140	3.18	0.64	1180	3.17	0.65
직업체험 활동 (서울 : 3.15, 광역시 : 3.16, 시군구 : 3.19)	서울	84	3.12	0.83	45	3.07	0.54	67	3.25	0.72
	광역시	237	3.03	0.77	152	3.10	0.72	187	3.34	0.63
	시군구	362	3.13	0.70	258	3.23	0.63	319	3.21	0.64
	소계	683	3.10	0.74	455	3.17	0.65	573	3.26	0.65
환경보존 활동 (서울 : 3.18, 광역시 : 3.12, 시군구 : 3.16)	서울	41	3.07	0.79	25	3.08	0.70	13	3.38	0.51
	광역시	78	3.04	0.69	35	3.31	0.53	32	3.00	0.57
	시군구	122	3.20	0.67	89	3.09	0.78	46	3.20	0.65
	소계	241	3.13	0.70	149	3.14	0.72	91	3.15	0.61
자기개발 활동 (서울 : 3.20, 광역시 : 3.22, 시군구 : 3.22)	서울	64	3.00	0.64	43	3.37	0.62	35	3.23	0.65
	광역시	138	3.09	0.70	73	3.23	0.64	63	3.35	0.63
	시군구	260	3.09	0.81	142	3.15	0.75	107	3.42	0.60
	소계	462	3.08	0.76	258	3.21	0.70	205	3.37	0.62

문화·예술활동(서울 3.25, 광역시 3.28, 시군구 3.29), 직업체험활동(서울 3.15, 광역시 3.16, 시군구 3.19), 자기개발활동(서울 3.20, 광역시 3.22, 시군구 3.22)은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보존활동(서울 3.18, 광역시 3.12, 시군구 3.16)은 서울, 시군구, 광역시의 순으로 참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상 3.08, 중 3.07, 하 3.03), 과학·정보활동(상 3.28, 중 3.25, 하 3.22), 교류활동(상 3.32, 중 3.28, 하 3.18), 모험·개척활동(상 3.19, 중 3.18, 하 3.14), 봉사활동(상 3.21, 중 3.18, 하 3.14), 자기개발활동(상 3.22, 중 3.22, 하 3.17)은 가구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상 3.26, 중 3.30, 하 3.24), 직업체험활동(상 3.15, 중 3.20, 하 3.13), 환경보존활동(상 3.13, 중 3.18, 하 3.07)은 소득규모 중→상→하 집단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I-12>.

표 III-1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만족도 변화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소득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보건 활동 (상 : 3.08, 중 : 3.07, 하 : 3.03)	상	209	2.99	0.69	97	3.13	0.66	88	3.11	0.75
	중	390	2.97	0.68	222	3.14	0.62	158	3.10	0.65
	하	89	2.97	0.68	51	3.02	0.71	39	3.10	0.72
	소계	688	2.98	0.68	370	3.12	0.64	285	3.11	0.69
과학·정보 활동 (상 : 3.28, 중 : 3.25, 하 : 3.22)	상	123	3.30	0.70	101	3.23	0.58	83	3.31	0.64
	중	180	3.30	0.62	147	3.29	0.69	101	3.16	0.60
	하	30	3.20	0.55	37	3.08	0.60	26	3.38	0.64
	소계	333	3.29	0.65	285	3.24	0.64	210	3.25	0.62
교류 활동 (상 : 3.32, 중 : 3.28,	상	63	3.29	0.73	35	3.26	0.66	27	3.41	0.50
	중	102	3.24	0.72	55	3.36	0.73	54	3.24	0.67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소득 규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하 : 3.18)	하	24	3.25	0.68	13	3.15	0.69	8	3.13	0.99
	소계	189	3.25	0.71	103	3.30	0.70	89	3.28	0.66
모험·개척 활동 (상 : 3.19, 중 : 3.18, 하 : 3.14)	상	202	3.10	0.73	113	3.22	0.68	71	3.24	0.66
	중	460	3.13	0.79	185	3.23	0.73	134	3.19	0.76
	하	103	3.06	0.76	36	3.28	0.57	15	3.07	0.70
	소계	765	3.12	0.77	334	3.23	0.70	220	3.20	0.73
문화·예술 활동 (상 : 3.26, 중 : 3.30, 하 : 3.24)	상	147	3.29	0.71	112	3.21	0.63	102	3.29	0.61
	중	250	3.31	0.64	213	3.27	0.63	169	3.33	0.61
	하	56	3.18	0.77	36	3.25	0.65	37	3.30	0.66
	소계	453	3.29	0.68	361	3.25	0.63	308	3.31	0.62
봉사 활동 (상 : 3.21, 중 : 3.18, 하 : 3.14)	상	397	3.17	0.69	343	3.23	0.68	353	3.22	0.64
	중	720	3.20	0.67	633	3.18	0.62	670	3.15	0.65
	하	162	3.22	0.68	142	3.07	0.64	138	3.13	0.66
	소계	1279	3.20	0.68	1118	3.18	0.64	1161	3.17	0.65
직업체험 활동 (상 : 3.15, 중 : 3.20, 하 : 3.13)	상	223	3.11	0.71	148	3.10	0.68	164	3.24	0.65
	중	363	3.09	0.76	246	3.23	0.65	317	3.29	0.61
	하	82	3.04	0.78	51	3.14	0.63	80	3.20	0.80
	소계	668	3.09	0.74	445	3.18	0.66	561	3.26	0.65
환경보존 활동 (상 : 3.13, 중 : 3.18, 하 : 3.07)	상	78	3.15	0.77	50	3.12	0.69	33	3.12	0.65
	중	131	3.13	0.66	85	3.18	0.76	45	3.22	0.42
	하	26	3.12	0.71	11	3.00	0.63	11	3.09	1.04
	소계	235	3.14	0.70	146	3.14	0.72	89	3.17	0.61
자기(인성) 개발 활동 (상 : 3.22, 중 : 3.22, 하 : 3.17)	상	159	3.10	0.72	79	3.23	0.72	69	3.33	0.59
	중	236	3.06	0.74	148	3.24	0.67	112	3.37	0.62
	하	58	3.09	0.94	28	3.00	0.82	21	3.43	0.75
	소계	453	3.08	0.76	255	3.21	0.70	202	3.36	0.62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희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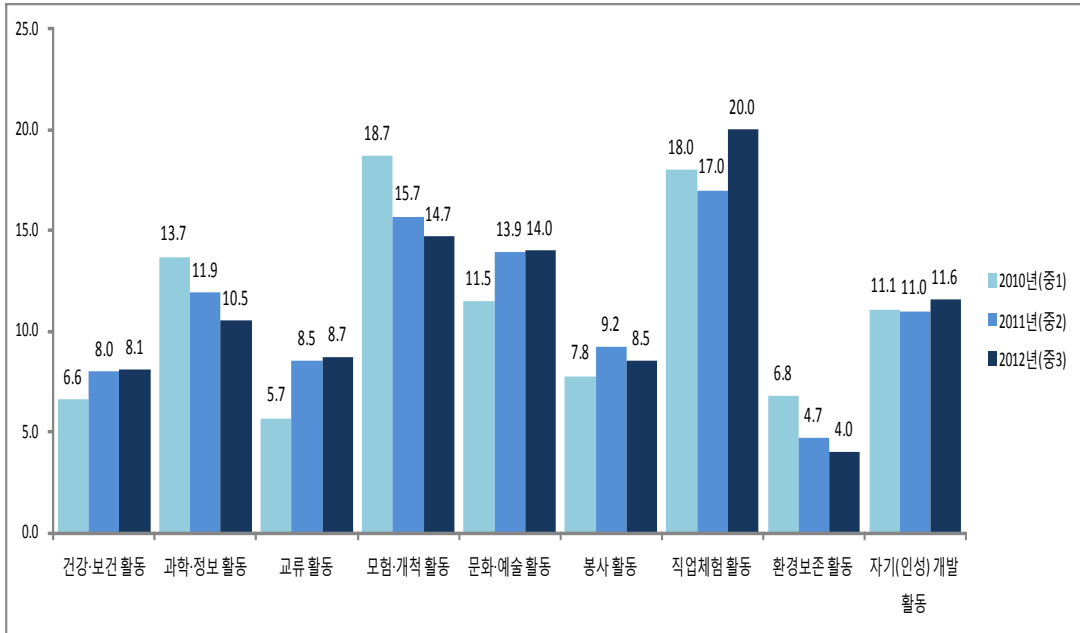
(1)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희망 정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로 조사 대상 청소년의 2010년(중학교 1학년), 2011년(중학교 2학년), 2012년(중학교 3학년)의 희망 체험활동을 조사한 결과, 직업체험활동(2010년 18.0%, 2011년 17.0%, 2012년 20.0%)과 모험·개척활동(2010년 18.7%, 2011년 15.7%, 2012년 14.7%)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류활동(2010년 5.7%, 2011년 8.5%, 2012년 8.7%)과 환경보존활동(2010년 6.8%, 2011년 4.7%, 2012년 4.0%)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Ⅲ-13>.

표 Ⅲ-1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 희망 정도 변화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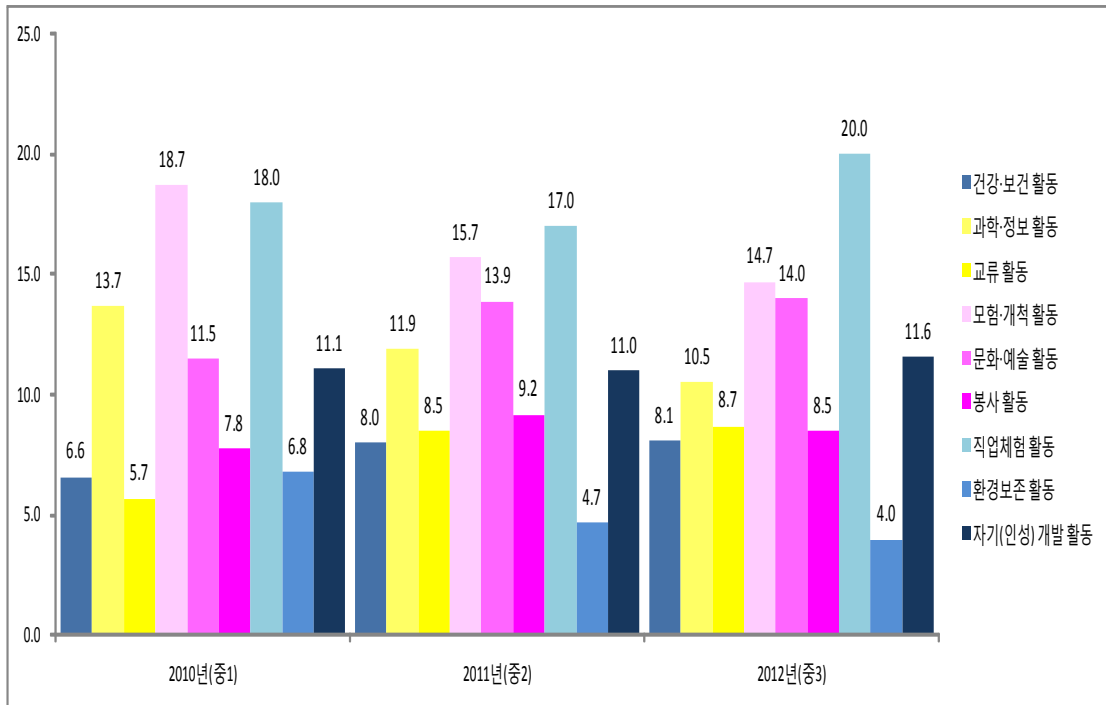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438	6.6	531	8.0	533	8.1
과학·정보 활동	905	13.7	787	11.9	693	10.5
교류 활동	379	5.7	559	8.5	572	8.7
모험·개척 활동	1,241	18.7	1,039	15.7	973	14.7
문화·예술 활동	763	11.5	917	13.9	926	14.0
봉사 활동	515	7.8	610	9.2	565	8.5
직업체험 활동	1,192	18.0	1,123	17.0	1,320	20.0
환경보존 활동	453	6.8	310	4.7	262	4.0
자기(인성) 개발 활동	736	11.1	729	11.0	767	11.6
소계	6,622	100.0	6,605	100.0	6,611	100.0

체험활동 영역별로 희망 체험활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 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건강보활동이나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의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Ⅲ-7].



[그림 III-7]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희망 체험활동 변화

중학교 3년간 학년별로 체험활동 영역별 희망 체험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중학교 1학년)에는 모험·개척 활동(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1년(중학교 2학년)과 2012년(중학교 3학년)에는 직업체험활동(2011년 17.0%, 2012년 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8].



[그림 III-8] 학년별 청소년의 희망 체험활동 변화

(2)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희망 정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희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의 활동(남자 57.47%, 여자 42.53%), 과학·정보활동(남자 70.33%, 여자 29.67%), 모험·개척활동(남자 58.23%, 여자 41.77%), 환경보존활동(남자 55.13%, 여자 44.87%)은 남자의 참여 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그 외의 교류활동(남자 44.77%, 여자 55.23%), 문화·예술활동(남자 37.20%, 여자 62.80%), 봉사활동(남자 48.10%, 여자 51.90%), 직업체험활동(남자 44.27%, 여자 55.73%), 자기개발활동(남자 42.80%, 여자 57.20%)은 여자의 참여 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III-14>.

표 III-1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성별 참여 희망 정도 변화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성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남자 : 57.47, 여자 : 42.53)	남자	243	55.5	311	58.6	311	58.3
	여자	195	44.5	220	41.4	222	41.7
	소계	438	100.0	531	100.0	533	100.0
과학·정보 활동 (남자 : 70.33, 여자 : 29.67)	남자	630	69.6	551	70.0	495	71.4
	여자	275	30.4	236	30.0	198	28.6
	소계	905	100.0	787	100.0	693	100.0
교류 활동 (남자 : 44.77, 여자 : 55.23)	남자	157	41.4	269	48.1	256	44.8
	여자	222	58.6	290	51.9	316	55.2
	소계	379	100.0	559	100.0	572	100.0
모험·개척 활동 (남자 : 58.23, 여자 : 41.77)	남자	712	57.4	607	58.4	573	58.9
	여자	529	42.6	432	41.6	400	41.1
	소계	1,241	100.0	1,039	100.0	973	100.0
문화·예술 활동 (남자 : 37.20, 여자 : 62.80)	남자	258	33.8	352	38.4	365	39.4
	여자	505	66.2	565	61.6	561	60.6
	소계	763	100.0	917	100.0	926	100.0
봉사 활동 (남자 : 48.10, 여자 : 51.90)	남자	257	49.9	284	46.6	270	47.8
	여자	258	50.1	326	53.4	295	52.2
	소계	515	100.0	610	100.0	565	100.0
직업체험 활동 (남자 : 44.27, 여자 : 55.73)	남자	536	45.0	476	42.4	599	45.4
	여자	656	55.0	647	57.6	721	54.6
	소계	1,192	100.0	1,123	100.0	1,320	100.0
환경보존 활동 (남자 : 55.13, 여자 : 44.87)	남자	253	55.8	175	56.5	139	53.1
	여자	200	44.2	135	43.5	123	46.9
	소계	453	100.0	310	100.0	262	100.0
자기(인성) 개발 활동 (남자 : 42.80, 여자 : 57.20)	남자	304	41.3	307	42.1	345	45.0
	여자	432	58.7	422	57.9	422	55.0
	소계	736	100.0	729	100.0	767	100.0

(3)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희망 정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참여 희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서울

8.27%, 광역시 33.67%, 시군구 58.07%), 과학정보활동(서울 8.83%, 광역시 32.87%, 시군구 58.30%), 교류활동(서울 9.13%, 광역시 33.87%, 시군구 57.00%), 모험·개척활동(서울 8.47%, 광역시 33.40%, 시군구 58.13%), 문화·예술활동(서울 9.97%, 광역시 33.20%, 시군구 56.83%), 봉사활동(서울 10.47%, 광역시 31.03%, 시군구 58.50%), 직업체험활동(서울 8.63%, 광역시 32.70%, 시군구 58.70%), 환경보존활동(서울 9.40%, 광역시 27.73%, 시군구 62.83%), 자기개발활동(서울 9.07%, 광역시 31.23%, 시군구 59.70%) 모두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해당 참여활동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5>.

표 III-15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도시규모별 희망 정도 변화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규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서울 : 8.27, 광역시 : 33.67, 시군구 : 58.07)	서울	33	7.8	50	9.7	38	7.3
	광역시	142	33.4	177	34.2	173	33.4
	시군구	250	58.8	290	56.1	307	59.3
	소계	425	100.0	517	100.0	518	100.0
과학·정보 활동 (서울 : 8.83, 광역시 : 32.87, 시군구 : 58.30)	서울	74	8.4	70	9.1	61	9.0
	광역시	304	34.5	251	32.6	213	31.5
	시군구	504	57.1	448	58.3	403	59.5
	소계	882	100.0	769	100.0	677	100.0
교류 활동 (서울 : 9.13, 광역시 : 33.87, 시군구 : 57.00)	서울	31	8.3	51	9.2	56	9.9
	광역시	129	34.6	172	31.2	202	35.8
	시군구	213	57.1	329	59.6	306	54.3
	소계	373	100.0	552	100.0	564	100.0
모험·개척 활동 (서울 : 8.47, 광역시 : 33.40, 시군구 : 58.13)	서울	106	8.8	78	7.7	84	8.9
	광역시	404	33.5	342	33.9	310	32.8
	시군구	696	57.7	589	58.4	551	58.3
	소계	1,206	100.0	1,009	100.0	945	100.0
문화·예술 활동 (서울 : 9.97, 광역시 : 33.20, 시군구 : 56.83)	서울	72	9.7	81	9.1	100	11.1
	광역시	233	31.3	305	34.2	307	34.1
	시군구	439	59.0	505	56.7	494	54.8
	소계	744	100.0	891	100.0	901	100.0
봉사 활동 (서울 : 10.47, 광역시 : 31.03, 시군구 : 58.50)	서울	47	9.4	64	10.8	62	11.2
	광역시	140	27.9	187	31.5	186	33.7
	시군구	314	62.7	342	57.7	304	55.1
	소계	501	100.0	593	100.0	552	100.0
직업체험	서울	109	9.4	94	8.6	102	7.9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도시규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활동 (서울 : 8.63, 광역시 : 32.70, 시군구 : 58.70)	광역시	383	33.0	363	33.1	411	32.0
	시군구	670	57.7	640	58.3	773	60.1
	소계	1,162	100.0	1,097	100.0	1,286	100.0
환경보존 활동 (서울 : 9.40, 광역시 : 27.73, 시군구 : 62.83)	서울	41	9.3	37	12.2	17	6.7
	광역시	135	30.7	78	25.7	68	26.8
	시군구	264	60.0	188	62.0	169	66.5
	소계	440	100.0	303	100.0	254	100.0
자기(인성) 개발 활동 (서울 : 9.07, 광역시 : 31.23, 시군구 : 59.70)	서울	70	9.7	62	8.7	66	8.8
	광역시	232	32.1	218	30.7	232	30.9
	시군구	421	58.2	431	60.6	452	60.3
	소계	723	100.0	711	100.0	750	100.0

(4)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희망 정도 변화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희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건활동(상 24.83%, 중 61.93%, 하 13.23%), 과학·정보활동(상 30.57%, 중 57.27%, 하 12.17%), 교류활동(상 31.17%, 중 55.40%, 하 13.40%), 모험·개척활동(상 29.00%, 중 57.73%, 하 13.23%), 문화·예술활동(상 30.63%, 중 55.83%, 하 13.60%), 봉사활동(상 29.77%, 중 56.03%, 하 14.17%), 직업·체험활동(상 28.43%, 중 57.37%, 하 14.20%), 환경보존활동(상 26.77%, 중 57.93%, 하 15.30%), 자기개발활동(상 27.47%, 중 58.67%, 하 13.93%) 모두 가구 소득규모가 하→상→중 집단일수록 해당 참여활동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6>.

표 III-16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별 참여 희망 정도 변화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소득규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건강·보건 활동 (상 : 24.83, 중 : 61.93, 하 : 13.23)	상	107	25.5	130	25.4	121	23.6
	중	261	62.1	311	60.9	322	62.8
	하	52	12.4	70	13.7	70	13.6
	소계	420	100.0	511	100.0	513	100.0
과학·정보 활동 (상 : 30.57, 중 : 57.27, 하 : 12.17)	상	262	30.4	236	31.3	199	30.0
	중	500	57.9	423	56.2	383	57.7
	하	101	11.7	94	12.5	82	12.3
	소계	863	100.0	753	100.0	6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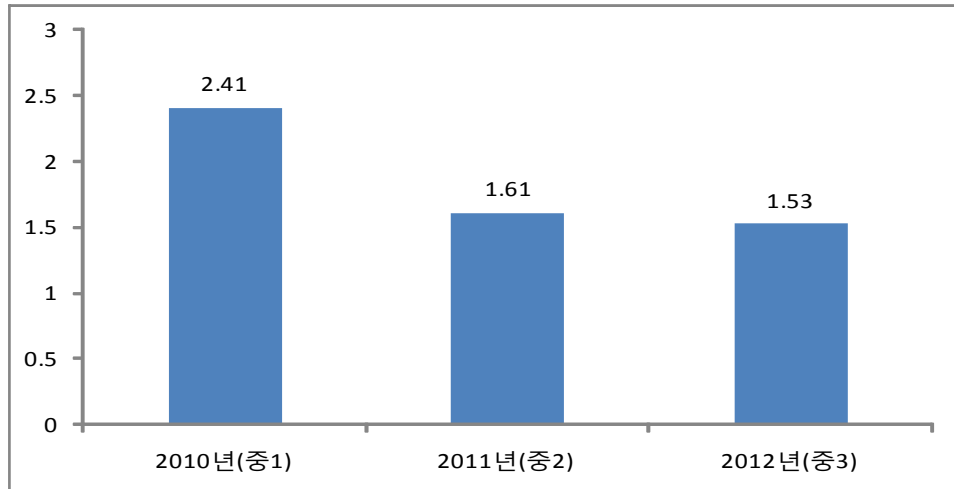
구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영역	소득규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교류 활동 (상 : 31.17, 중 : 55.40, 하 : 13.40)	상	110	30.1	179	32.7	170	30.7
	중	200	54.6	306	55.9	308	55.7
	하	56	15.3	62	11.3	75	13.6
	소계	366	100.0	547	100.0	553	100.0
모험·개척 활동 (상 : 29.00, 중 : 57.73, 하 : 13.23)	상	333	28.1	287	29.0	277	29.9
	중	702	59.3	568	57.4	523	56.5
	하	149	12.6	135	13.6	125	13.5
	소계	1,184	100.0	990	100.0	925	100.0
문화·예술 활동 (상 : 30.60, 중 : 55.83, 하 : 13.60)	상	236	32.3	266	30.6	255	28.9
	중	398	54.5	473	54.4	516	58.6
	하	96	13.2	131	15.1	110	12.5
	소계	730	100.0	870	100.0	881	100.0
봉사 활동 (상 : 29.77, 중 : 56.03, 하 : 14.17)	상	136	27.6	169	29.0	175	32.7
	중	281	57.1	338	58.1	283	52.9
	하	75	15.2	75	12.9	77	14.4
	소계	492	100.0	582	100.0	535	100.0
직업체험 활동 (상 : 28.43, 중 : 57.37, 하 : 14.20)	상	333	29.3	307	28.6	346	27.4
	중	641	56.4	615	57.2	739	58.5
	하	163	14.3	153	14.2	178	14.1
	소계	1,137	100.0	1,075	100.0	1,263	100.0
환경보존 활동 (상 : 26.77, 중 : 57.93, 하 : 15.30)	상	122	28.1	74	24.9	68	27.3
	중	243	56.0	184	62.0	139	55.8
	하	69	15.9	39	13.1	42	16.9
	소계	434	100.0	297	100.0	249	100.0
자기(인성) 개발 활동 (상 : 27.47, 중 : 58.67, 하 : 13.93)	상	194	27.5	184	26.5	211	28.4
	중	417	59.1	414	59.6	425	57.3
	하	95	13.5	97	14.0	106	14.3
	소계	706	100.0	695	100.0	742	100.0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집단구분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와 집단 구분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

조사대상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2012년)까지 연도별로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를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9개 영역의 체험활동 중 중학교 1학년 1년간에는 총 2.41개,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1.61개, 중학교 3학년은 1.53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 영역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9].



[그림 III-9]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영역 수

표 III-17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영역 수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41	1.79	1.61	1.73	1.53	1.62

또한 중학교 3년간 청소년이 참여한 전체 체험활동 영역 수는 평균 5.55개로 나타나 1년에 1.85개 정도의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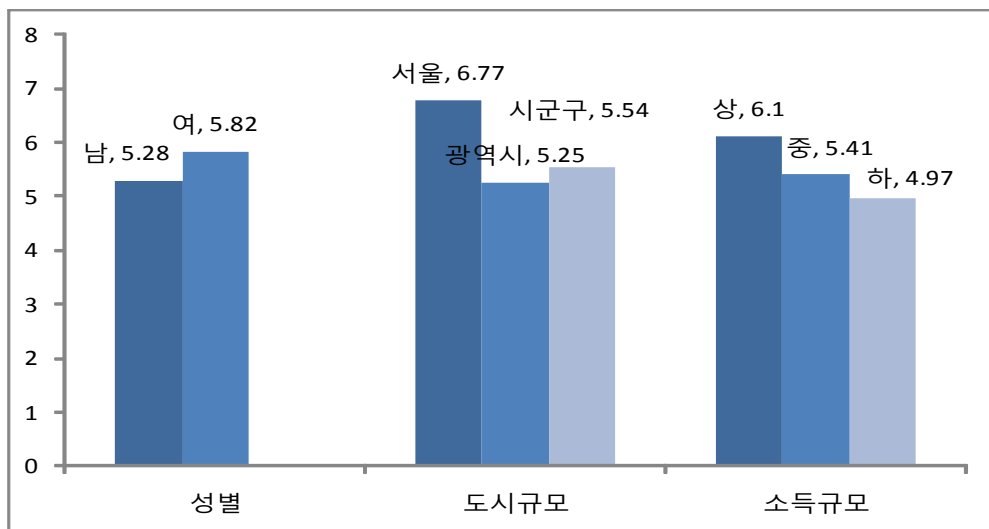
표 III-18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총 영역 수 (2010~2012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198	5.55	3.83	0	26

성별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를 분석한 결과, 여자(평균=5.82)가 남자(평균=5.28)보다 많은 영역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0].

도시규모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평균=6.77), 시군구(평균=5.54), 광역시(평균=5.25) 순으로 많은 영역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서울과 광역시 간의 차이와 서울과 시군구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II-19>.

가구 소득규모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를 분석한 결과, 상(평균=6.10), 중(평균=5.41), 하(평균=4.97) 집단의 순으로 많은 영역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10]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총 영역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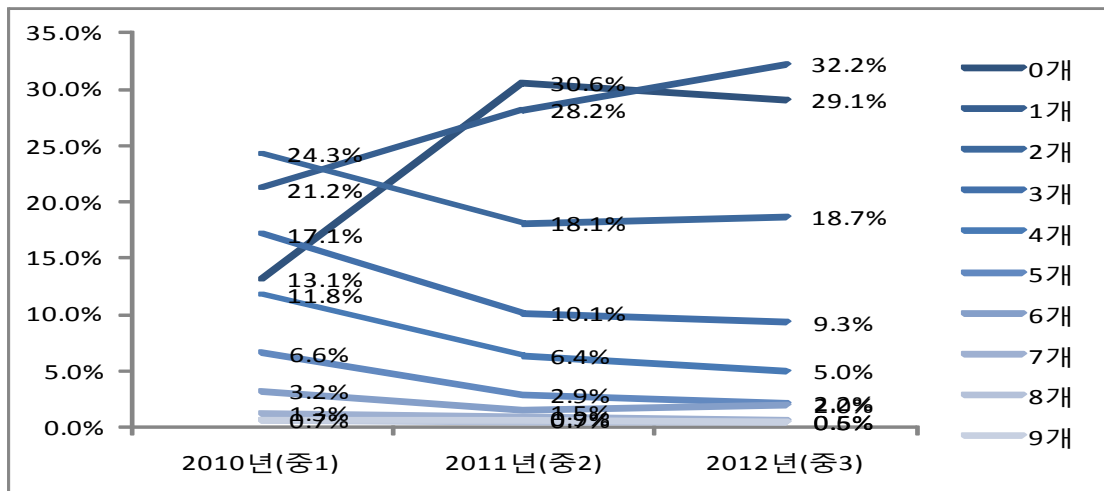
표 III-19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총 영역 수 (2010~2012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 F	사후분석
성별	남자	1,114	5.28	3.74	-3.308***	-
	여자	1,084	5.82	3.90		
도시규모	서울	190	6.77	3.75	11.993***	서울>광역시, 서울>시군구
	광역시	697	5.25	3.73		
	시군구	1,255	5.54	3.84		
	소계	2,142	5.55	3.82		
가구 소득규모	상	606	6.10	3.86	10.687***	상>중, 상>하
	중	1,205	5.41	3.77		
	하	289	4.97	3.74		
	소계	2,100	5.55	3.81		

주) *** : p<0.001, ** : p<0.01, * : p<0.05

중학교 3년 중에 매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1년 중 최소 0개, 최대 9개 영역)의 변화를 1년 단위로 살펴보면 1년간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전체의 13.1%였으나,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급상승하여 30.6%로 나타났고, 중학교 3학년에서도 29.1%로 나타났다. 또한, 1년에 1회 참여한 경우도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21.2%였다가 중학교 3학년에 32.2%로 나타났다[그림 III-11].



[그림 III-11] 연도별 체험활동 총 참여 영역 수 변화

표 III-20 연도별 체험활동 총 참여 영역 수 (단위 : %)

참여 횟수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0	292	13.1	681	30.6	640	29.1
1	473	21.2	628	28.2	708	32.2
2	541	24.3	404	18.1	411	18.7
3	382	17.1	226	10.1	205	9.3
4	264	11.8	142	6.4	110	5.0
5	148	6.6	65	2.9	49	2.2
6	72	3.2	34	1.5	43	2.0
7	28	1.3	19	0.9	14	0.6
8	13	0.6	12	0.5	10	0.5
9	15	0.7	16	0.7	11	0.5
전체	2,228	100.0	2,227	100.0	2,201	100.0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에 따른 집단 구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청소년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중학교 3학년의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체험활동 참여 영역 정도에 따른 집단(중1-중2)을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은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의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 수 빈도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전체 청소년을 1년 단위로 5개 집단(참여 횟수 '0' 1개 집단, 전체 평균 이하 2개 집단, 평균 이상 2개 집단)으로 나눈 후, 개인별로 속한 집단의 2년간 점수의 평균을 내어 참여 횟수 0, 평균 이하, 평균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 결과,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상' 집단은 1,035명(46.5%),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중' 집단은 1,051명(47.2%), 참여 횟수 0에 해당하는 '하' 집단은 140명(6.3%)으로 나타났다<표 II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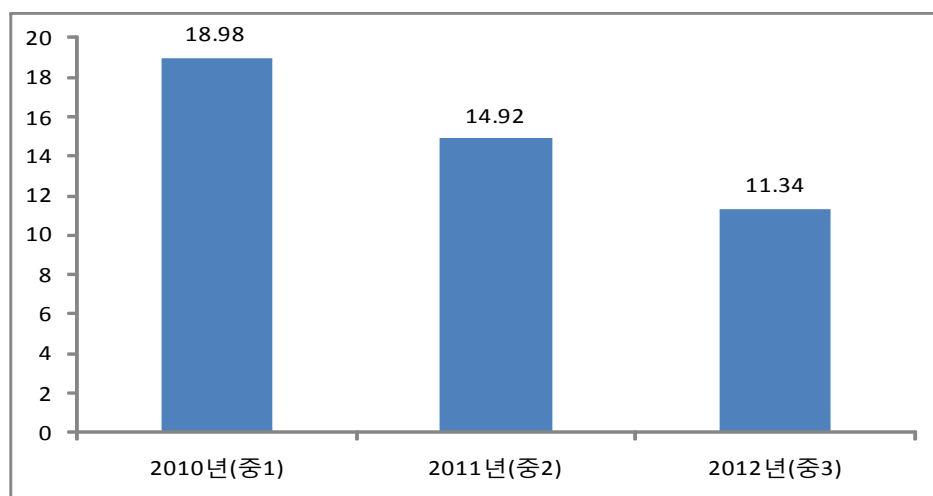
표 III-21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에 따른 집단 구분 (중1-중2) (단위 : %)

구분	빈도	퍼센트
상	1,035	46.5
중	1,051	47.2
하	140	6.3
전체	2,226	100.0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시간과 집단 구분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시간

조사대상 청소년의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2012년)까지 연도별로 체험활동 총 참여시간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1년간에는 총 18.98시간, 중학교 2학년에는 14.92시간, 중학교 3학년에는 11.34시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2>.



[그림 Ⅲ-12] 연도별 체험활동 평균 참여 시간

표 Ⅲ-22 연도별 체험활동 평균 참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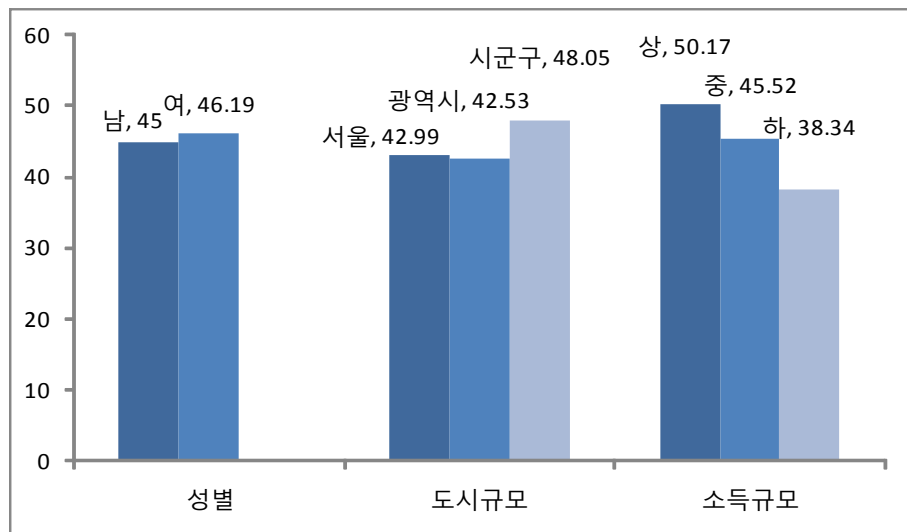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8.98	19.49	14.92	29.64	11.34	15.79

중학교 시기의 3년간 체험활동 총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45.58시간으로 1년간 평균 15.19시간을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표 Ⅲ-23>.

표 III-23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 (2010~2012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25	45.58	44.20	1.00	479.00

성별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자(평균=46.19)가 남자(평균=45.00)보다 체험활동 참여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그림 III-13].



[그림 III-13]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총 참여시간

도시규모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시군구(평균=48.05), 서울(평균=42.99), 광역시(평균=42.53)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시군구와 광역시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II-24>. 즉,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참여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규모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 시간을 분석한 결과, 상(평균=50.17), 중(평균=45.52), 하(평균=38.34) 집단의 순으로 체험활동 참여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가구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참여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표 III-24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 (2010~2012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 F	사후분석
성별	남자	1,027	45.00	45.85	-0.605	
	여자	998	46.19	42.46		
도시규모	서울	179	42.99	33.69	3.582*	시군구) 광역시
	광역시	639	42.53	40.64		
	시군구	1,156	48.05	47.69		
	소계	1,974	45.81	44.44		
가구 소득규모	상	551	50.17	43.03	6.446**	상)하
	중	1,123	45.52	44.87		
	하	262	38.34	43.47		
	소계	1,936	45.87	44.29		

주) *** : p<0.001, ** : p<0.01, * : p<0.05

(2)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시간에 따른 집단 구분(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중학교 3학년이 된 후의 자아인식·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은 2010년과 2011년 체험활동 참여시간 분석 결과를 기초로 5개 집단(참여 시간 '0' 1개 집단, 참여시간 평균 이하 2개 집단, 평균 이상 2개 집단)으로 나눈 후, 청소년 개인별로 2개년간의 집단별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참여 시간 0, 평균 이하, 평균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 결과,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상' 집단은 1,096명(50.6%),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중' 집단은 929명(42.9%), 참여 시간 0에 해당하는 '하' 집단은 141(6.5%) 명으로 나타났다<표III-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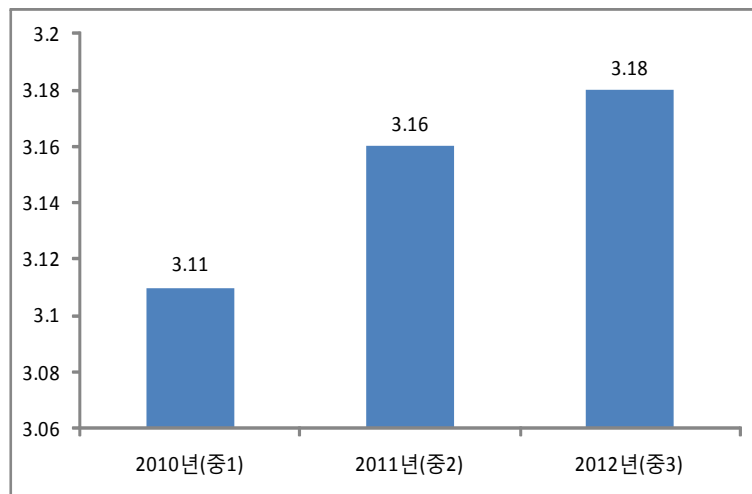
표 III-25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시간에 따른 집단 구분 (중1-중2) (단위 : %)

구분	빈도	퍼센트
상	1,096	50.6
중	929	42.9
하	141	6.5
전체	2,166	100.0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와 집단 구분

(1)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

조사대상 청소년의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2012년)까지 연도별로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3.11, 중학교 2학년은 3.16, 중학교 3학년은 3.1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고[그림 Ⅲ-14], 중학교 3년간의 참여 평균 만족도는 3.13으로 나타났다<표 Ⅲ-27>.



[그림 Ⅲ-14]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

표 Ⅲ-26 연도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

2010년 (중1)		2011년 (중2)		2012년 (중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11	0.57	3.16	0.56	3.18	0.58

표 Ⅲ-27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2010~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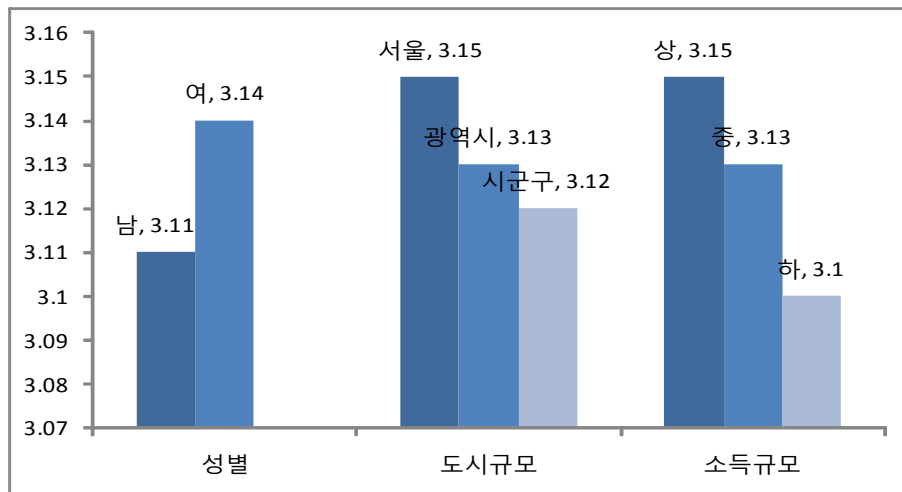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992	3.13	0.46	1.00	4.00

성별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자(평균=3.14)가 남자(평균=3.11)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그림 Ⅲ-15].

도시규모에 따른 체험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평균=3.15), 광역시(평균=3.13), 시군구(평균=3.12)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Ⅲ-28>.

가구 소득규모에 따른 체험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상(평균=3.15), 중(평균=3.13), 하(평균=3.10) 집단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의 경우, 도시규모가 높을수록,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5]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

표 III-28 배경변인별 중학교 3년간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평균 만족도 (2010~2012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 F	사후분석
성별	남자	1015	3.11	0.50	-1.507	
	여자	977	3.14	0.42		
도시규모	서울	175	3.15	0.41	0.210	
	광역시	633	3.13	0.47		
	시군구	1136	3.12	0.47		
	소계	1944	3.13	0.46		
가구 소득규모	상	556	3.15	0.44	1.098	
	중	1098	3.13	0.46		
	하	252	3.10	0.52		
	소계	1906	3.13	0.46		

(2)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에 따른 집단 구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 정도와 해당 청소년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자아인식·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은 2010년과 2011년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 분석 결과를 통해 5개 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별 평균 점수를 내어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구분 결과, ‘상’ 집단은 752명(36.3%), ‘중’ 집단은 354명(17.1%), ‘하’ 집단은 966명(46.6%)으로 나타났다<표 III-29>.

표 III-29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에 따른 집단 구분 (중1-중2)

구분	빈도	퍼센트
상	752	36.3
중	354	17.1
하	966	46.6
합계	2,072	100.0

제 4 장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삶의 만족도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사회적 발달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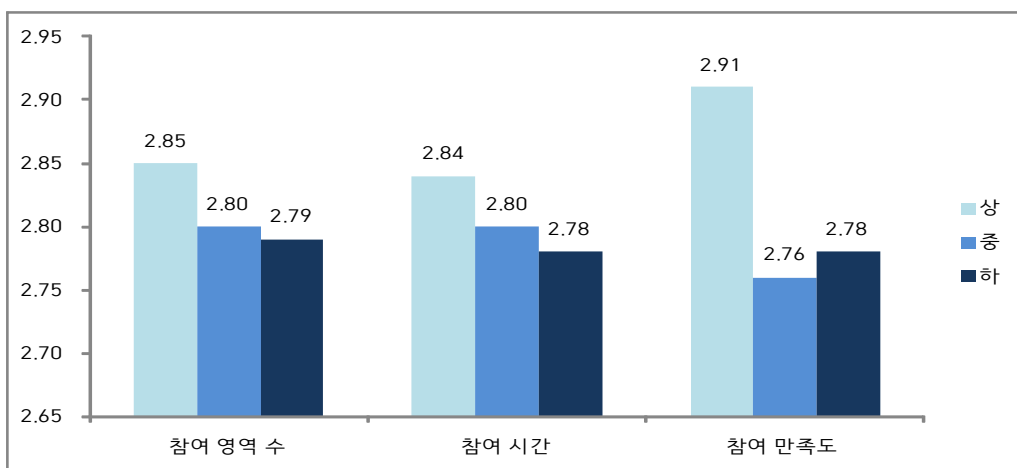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삶의 만족도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인식

①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존중감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일 때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85), 중(평균=2.80), 하(평균=2.79) 집단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사후 검증 결과 참여 영역이 상인 집단과 중 집단 간의 평균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1>, [그림 IV-1]).



[그림 IV-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중학교 1, 2학년의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일 때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이 상(평균=2.84), 중(평균=2.80), 하(평균=2.78) 집단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에 동일한 방식으로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가 상(평균=2.91), 하(평균=2.78), 중(평균=2.76) 집단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많고 참여 만족도가 상→하→중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절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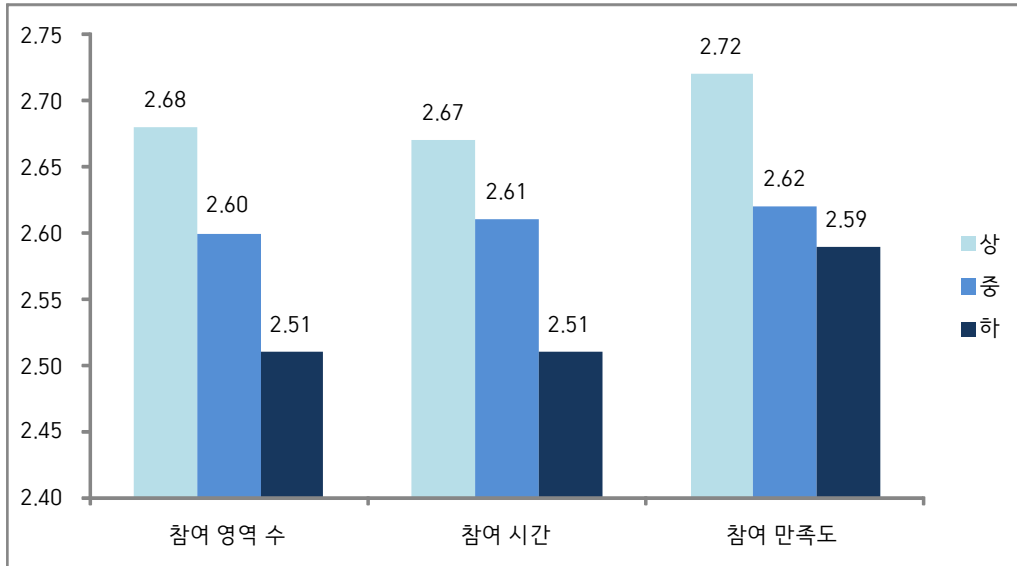
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2	2.85	0.46	3.538*	상>중
	중	1,047	2.80	0.45		
	하	140	2.79	0.43		
	소계	2,219	2.82	0.46		
참여 시간	상	1,093	2.84	0.47	2.338	
	중	926	2.80	0.44		
	하	141	2.78	0.44		
	소계	2,160	2.82	0.45		
참여 만족도	상	749	2.91	0.48	21.668***	상>중, 상>하
	중	353	2.76	0.41		
	하	963	2.78	0.45		
	소계	2,065	2.82	0.46		

주) *** : $p<0.001$, ** : $p<0.01$, * : $p<0.05$

②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정체감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일 때 청소년 자신의 자아정체감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68), 중(평균=2.60), 하(평균=2.51) 집단의 순으로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2>, [그림 IV-2]).



[그림 IV-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정체감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의 2년간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이 된 상태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 상(평균=2.67), 중(평균=2.61), 하(평균=2.51) 집단의 순으로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동일하게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2.72), 중(평균=2.62), 하(평균=2.59) 집단의 순으로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자아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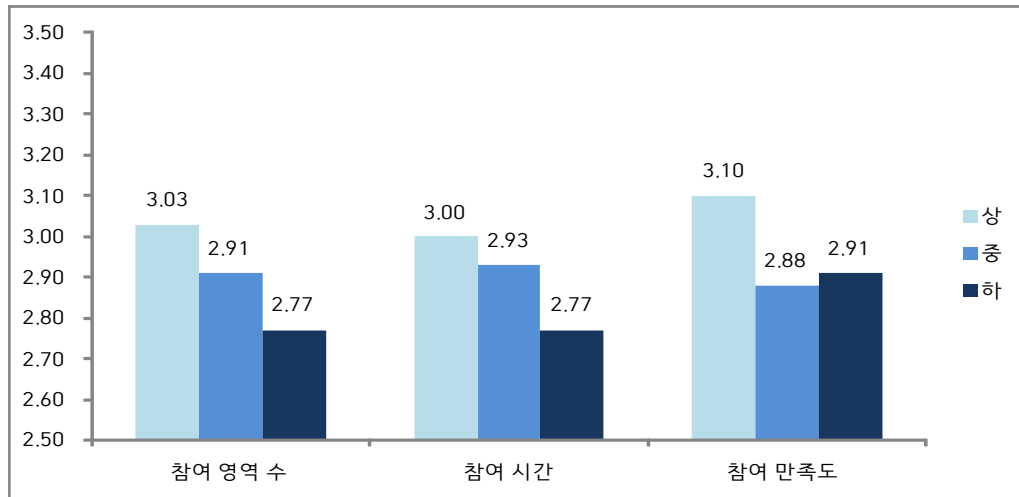
표 IV-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자아정체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3	2.68	0.41	19.139***	상>중, 상>하
	중	1,045	2.60	0.40		
	하	140	2.51	0.39		
	소계	2,218	2.63	0.40		
참여 시간	상	1,095	2.67	0.40	14.847***	상>중>하
	중	922	2.61	0.40		
	하	141	2.51	0.39		
	소계	2,158	2.63	0.40		
참여 만족도	상	749	2.72	0.42	23.408***	상>중, 상>하
	중	353	2.62	0.36		
	하	962	2.59	0.40		
	소계	2,064	2.64	0.40		

주) *** : $p<0.001$, ** : $p<0.01$, * : $p<0.05$

③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진로정체감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이 된 상태의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3.03), 중(평균=2.91), 하(평균=2.77) 집단의 순으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3>, [그림 IV-3]).



[그림 IV-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진로정체감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2년간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인 상태의 진로정체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이 상(평균=3.00), 중(평균=2.93), 하(평균=2.77) 집단의 순으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 정도와 중학교 3학년 시점의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가 상(평균=3.10), 하(평균=2.91), 중(평균=2.88) 집단의 순으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1, 2학년 시절에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총 참여 시간이 높을수록, 그리고 참여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이 된 상태에서의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진로정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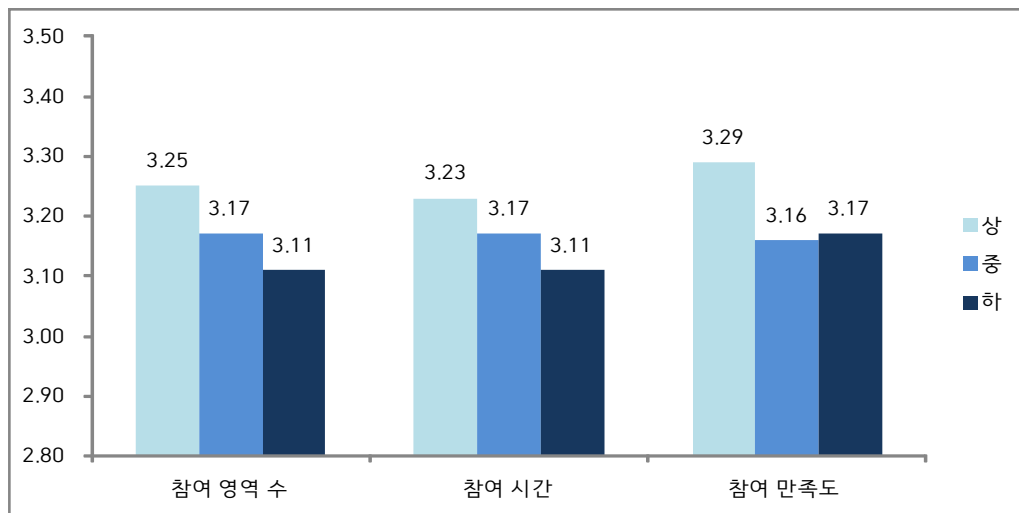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4	3.03	0.61	17.141***	상>중>하
	중	1,046	2.91	0.61		
	하	140	2.77	0.61		
	소계	2,220	2.96	0.62		
참여 시간	상	1,094	3.00	0.61	10.653***	상>중>하
	중	925	2.93	0.61		
	하	141	2.77	0.61		
	소계	2,160	2.95	0.62		
참여 만족도	상	750	3.10	0.60	27.319***	상>중, 상>하
	중	354	2.88	0.60		
	하	962	2.91	0.61		
	소계	2,066	2.97	0.62		

주) *** : $p<0.001$, ** : $p<0.01$, * : $p<0.05$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삶의 목표·삶의 만족도

①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삶의 목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삶의 목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 영역 수가 상(평균=3.25), 중(평균=3.17), 하(평균=3.11) 집단의 순으로 중학교 3학년 당시 삶의 목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4>, [그림 IV-4]).



[그림 IV-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삶의 목표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삶의 목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이 상(평균=3.23), 중(평균=3.17), 하(평균=3.11) 집단의 순으로 삶의 목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중학교 2학년까지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삶의 목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만족도가 상(평균=3.29), 하(평균=3.17), 중(평균=3.16) 집단의 순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 삶의 목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이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참여 시간이 높을수록, 그리고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삶의 목표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목표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0	3.25	0.37	16.688***	상>중, 상>하
	중	1,046	3.17	0.39		
	하	139	3.11	0.42		
	소계	2,215	3.20	0.39		
참여 시간	상	1,090	3.23	0.38	8.900***	상>중, 상>하
	중	925	3.17	0.38		
	하	140	3.11	0.42		
	소계	2,155	3.20	0.39		
참여 만족도	상	750	3.29	0.37	25.191***	상>중, 상>하
	중	353	3.16	0.36		
	하	959	3.17	0.39		
	소계	2,062	3.21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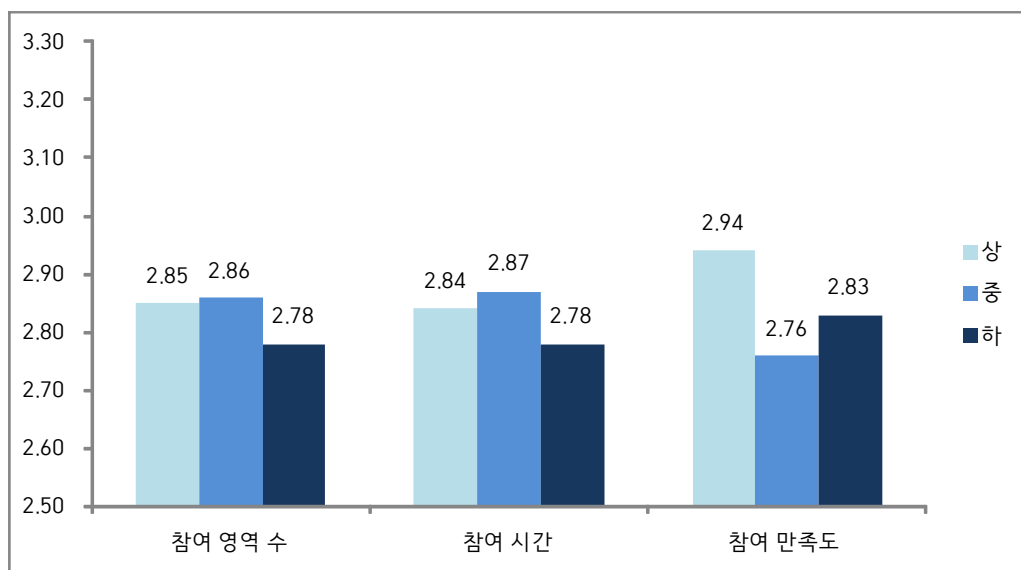
주) *** : p(0.001, ** : p(0.01, * : p(0.05

②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만족도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중(평균=2.86), 상(평균=2.85), 하(평균=2.78) 집단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IV-5>, [그림 IV-5]).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시절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한 영역 수와 동일하게 참여 시간 중(평균=2.87), 상(평균=2.84), 하(평균=2.78) 집단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2.94), 하(평균=2.83), 중(평균=2.76) 집단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IV-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만족도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총 시간,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삶의 만족도와 명확한 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IV-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삶의 만족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5	2.85	0.780	
	중	1,049	2.86		
	하	140	2.78		
	소계	2,224	2.85		
참여 시간	상	1,095	2.84	1.360	
	중	928	2.87		
	하	141	2.78		
	소계	2,164	2.85		
참여 만족도	상	751	2.94	10.225***	상>중, 상>하
	중	354	2.76		
	하	965	2.83		
	소계	2,070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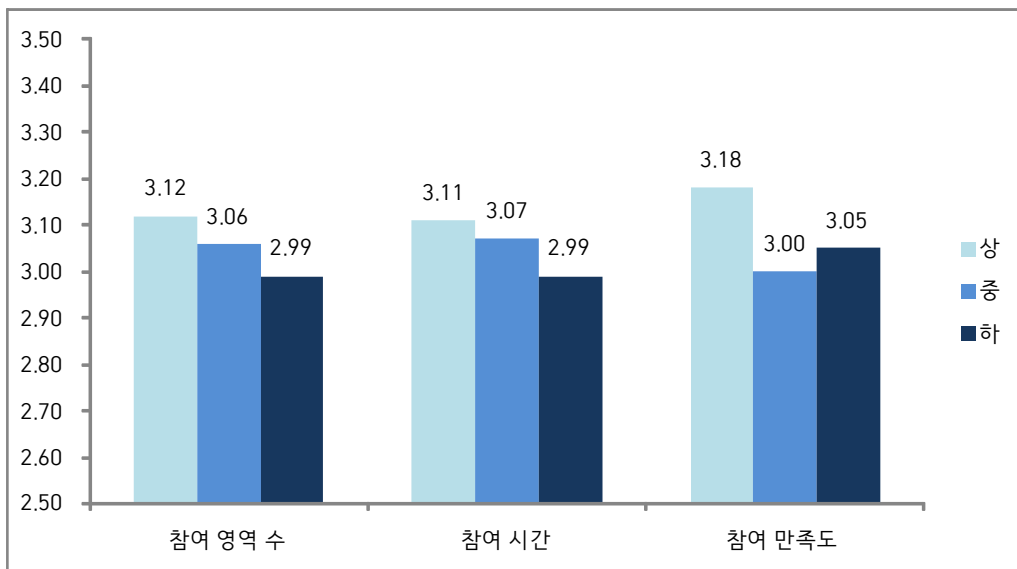
주) *** : $p(0.001)$, ** : $p(0.01)$, * : $p(0.05)$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사회적 발달

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관계

①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시기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학년까지의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3.12), 중(평균=3.06), 하(평균=2.99) 집단의 순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6>, [그림 IV-6]).



[그림 IV-6]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간 의사소통능력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 상(평균=3.11), 중(평균=3.07), 하(평균=2.99) 집단의 순으로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3.18), 하(평균=3.05), 중(평균=3.00) 집단의 순으로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참여 시간이 높을수록, 그리고 참여 만족도가 상→하→중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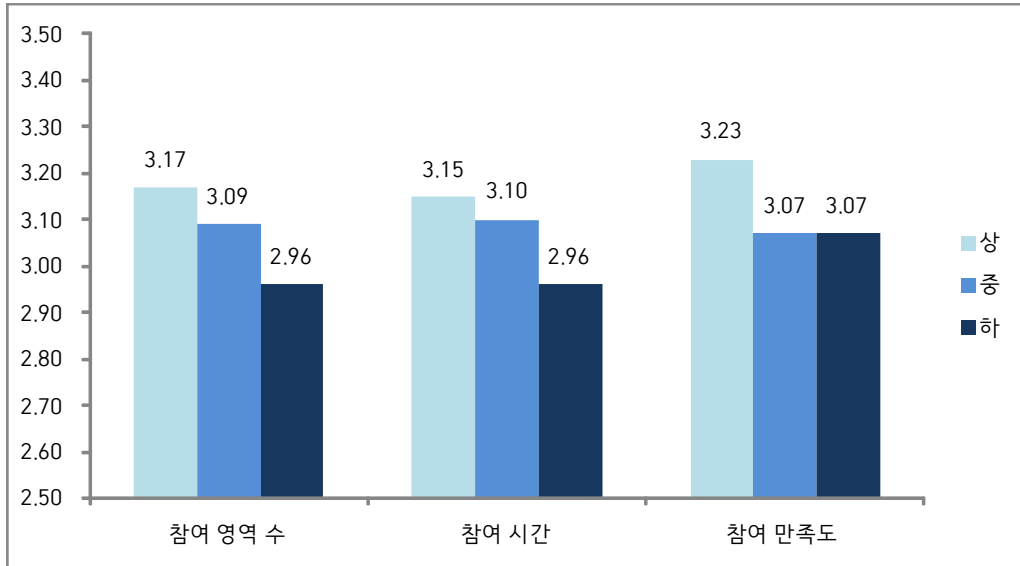
표 IV-6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간 의사소통 능력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5	3.12	0.54	6.504**	상>중, 상>하,
	중	1,051	3.06	0.55		
	하	140	2.99	0.59		
	소계	2,226	3.08	0.55		
참여 시간	상	1,096	3.11	0.53	3.727*	상>하
	중	929	3.07	0.55		
	하	141	2.99	0.59		
	소계	2,166	3.08	0.55		
참여 만족도	상	752	3.18	0.54	17.218***	상>중, 상>하
	중	354	3.00	0.51		
	하	966	3.05	0.55		
	소계	2,072	3.09	0.54		

주) *** : $p<0.001$, ** : $p<0.01$, * : $p<0.05$

②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간 신뢰 정도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청소년이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당시의 친구간 신뢰 정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3.17), 중(평균=3.09), 하(평균=2.96) 집단의 순으로 친구 신뢰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7>, [그림 IV-7]).



[그림 IV-7]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 신뢰 정도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당시 친구간 신뢰 정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 상(평균=3.15), 중(평균=3.10), 하(평균=2.96) 집단의 순으로 친구 신뢰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와 중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V-7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 신뢰 정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5	3.17	9.256***	상>중>하
	중	1,050	3.09		
	하	140	2.96		
	소계	2,225	3.12		
참여 시간	상	1,096	3.15	6.476**	상>하, 중>하
	중	928	3.10		
	하	141	2.96		
	소계	2,165	3.12		
참여 만족도	상	752	3.23	17.455***	상>중, 상>하
	중	354	3.07		
	하	965	3.07		
	소계	2,071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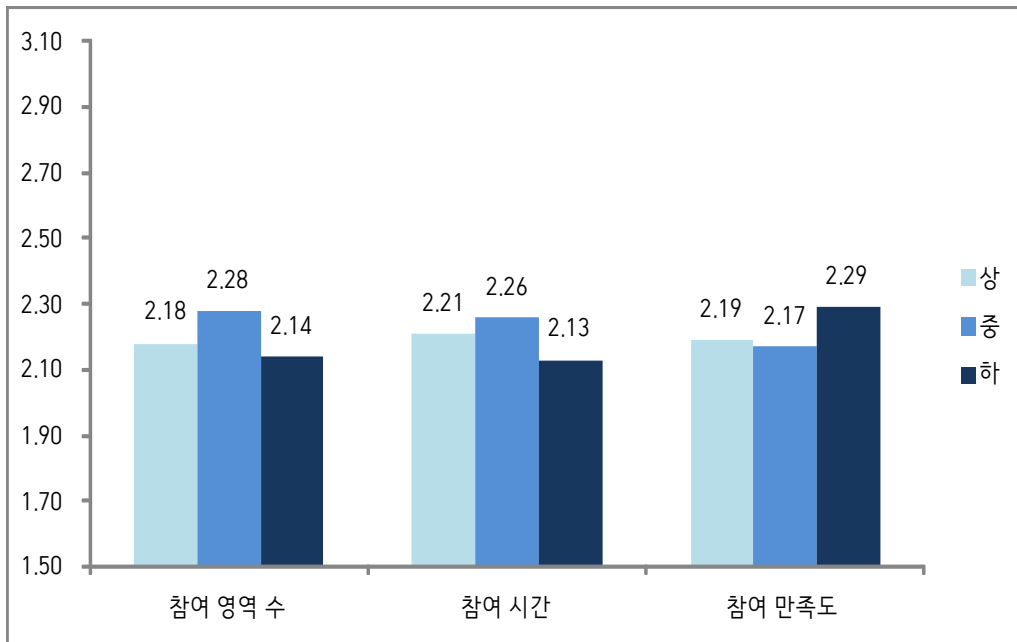
주) *** : $p<0.001$, ** : $p<0.01$, * : $p<0.05$

이 밖에 중학교 2학년까지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이후 중학교 3학년의 친구간 신뢰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가 상(평균=3.23), 중(평균=3.07), 하(평균=3.07) 집단의 순으로 친구 신뢰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된 이후 친구간 신뢰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중(평균=2.28), 상(평균=2.18), 하(평균=2.14) 집단의 순으로 친구로부터 소외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중 집단과 상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8>, [그림 IV-8]).



[그림 IV-8]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의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 중(평균=2.26), 상(평균=2.21), 하(평균=2.13) 집단의 순으로 친구 소외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밖에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하(평균=2.29), 상(평균=2.19), 중(평균=2.17) 집단의 순으로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중→상→하 집단일수록, 그리고 참여 만족도가 하→상→중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8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친구로부터 소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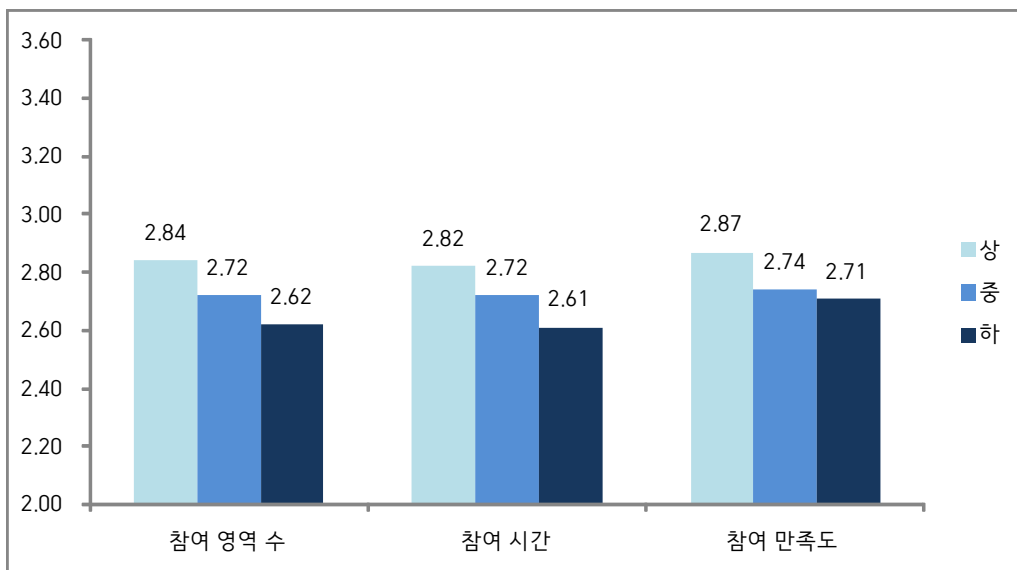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5	2.18	0.90	3.976*	중>상
	중	1,049	2.28	0.90		
	하	139	2.14	0.84		
	소계	2,223	2.23	0.90		
참여 시간	상	1,096	2.21	0.89	1.584	
	중	927	2.26	0.90		
	하	140	2.13	0.85		
	소계	2,163	2.22	0.89		
참여 만족도	상	750	2.19	0.93	3.344*	
	중	354	2.17	0.83		
	하	966	2.29	0.90		
	소계	2,070	2.23	0.90		

주) *** : $p<0.001$, ** : $p<0.01$, * : $p<0.05$

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교생활

①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습활동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당시의 학습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2학년까지의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84), 중(평균=2.72), 하(평균=2.62) 집단의 순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되어 학습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9>, [그림 IV-9]).



[그림 IV-9]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습활동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시기 학습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참여 시간이 상(평균=2.82), 중(평균=2.72), 하(평균=2.61) 집단의 순으로 학습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학습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2.87), 중(평균=2.74), 하(평균=2.71) 집단의 순으로 학습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 학습활동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9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습활동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4	2.84	0.43	26.069***	상>중>하
	중	1,050	2.72	0.46		
	하	140	2.62	0.41		
	평균	2,224	2.77	0.45		
참여 시간	상	1,095	2.82	0.43	21.410***	상>중>하
	중	928	2.72	0.45		
	하	141	2.61	0.42		
	소계	2,164	2.76	0.44		
참여 만족도	상	751	2.87	0.42	30.121***	상>중, 상>하
	중	354	2.74	0.42		
	하	965	2.71	0.46		
	소계	2,070	2.78	0.45		

주) *** : $p<0.001$, ** : $p<0.01$, * : $p<0.05$

②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교규칙 준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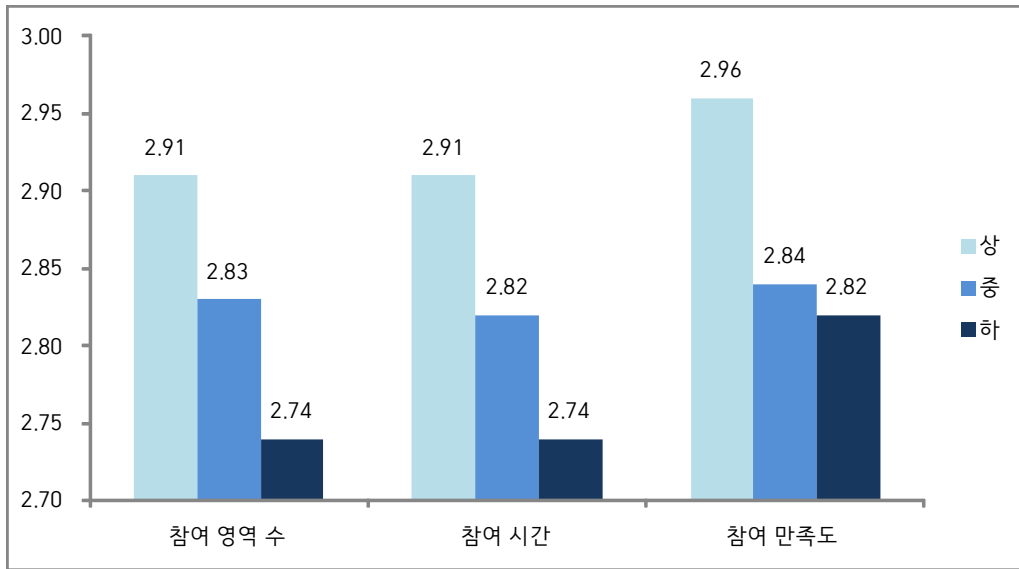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시기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91), 중(평균=2.83), 하(평균=2.74) 집단의 순으로 학교규칙 준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10>, [그림 IV-10]).

또한 체험활동 참여 시간과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 시간이 상(평균=2.91), 중(평균=2.82), 하(평균=2.74) 집단의 순으로 학교규칙 준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2.96), 중(평균=2.84), 하(평균=2.82) 집단의 순으로 학교규칙 준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학교규칙 준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0]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교규칙 준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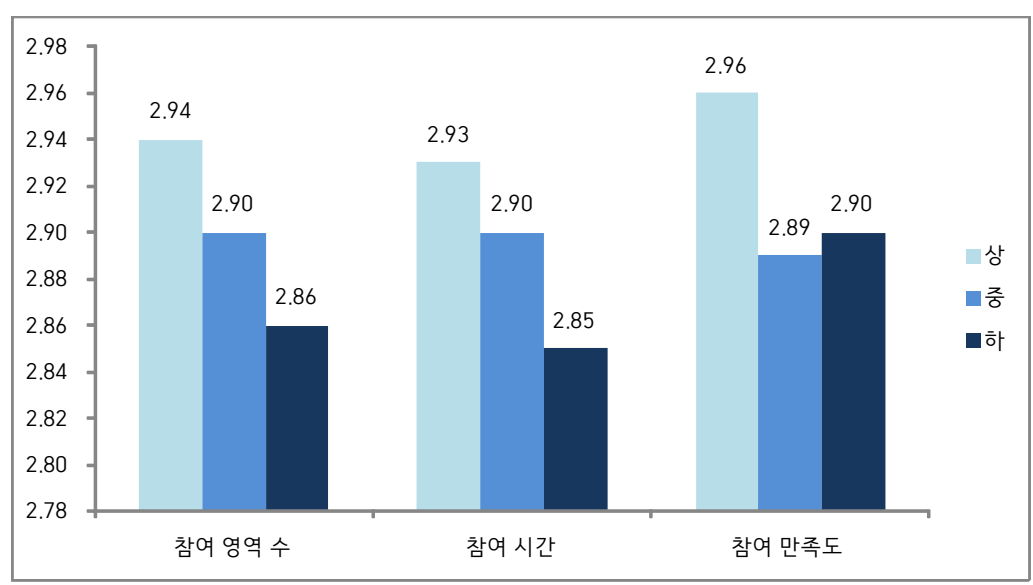
표 IV-10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학교규칙 준수 정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4	2.91	0.54	9.220***	상>중, 상>하
	중	1,050	2.83	0.53		
	하	140	2.74	0.53		
	소계	2,224	2.86	0.54		
참여 시간	상	1,094	2.91	0.53	10.784***	상>중, 상>하
	중	929	2.82	0.53		
	하	141	2.74	0.52		
	소계	2,164	2.86	0.53		
참여 만족도	상	751	2.96	0.53	16.082***	상>중, 상>하
	중	353	2.84	0.49		
	하	966	2.82	0.55		
	소계	2,070	2.87	0.54		

주) *** : $p<0.001$, ** : $p<0.01$, * : $p<0.05$

③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우관계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의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94), 중(평균=2.90), 하(평균=2.86) 집단의 순으로 교우관계가 높게 나타났다(<표 IV-11>, [그림 IV-11]).



[그림 IV-1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우관계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 상(평균=2.93), 중(평균=2.90), 하(평균=2.85) 집단의 순으로 교우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2.96), 하(평균=2.90), 중(평균=2.89) 집단의 순으로 교우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참여 시간이 높을수록, 그리고 참여 만족도가 상→하→중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우관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우관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3	2.94	0.37	4.070*	
	중	1,049	2.90	0.42		
	하	140	2.86	0.41		
	소계	2,222	2.92	0.40		
참여 시간	상	1,093	2.93	0.38	3.697*	
	중	928	2.90	0.41		
	하	141	2.85	0.42		
	소계	2,162	2.91	0.40		
참여 만족도	상	751	2.96	0.37	6.019**	상>중, 상>하
	중	353	2.89	0.40		
	하	964	2.90	0.42		
	소계	2,068	2.92	0.40		

주) *** : $p<0.001$, ** : $p<0.01$, *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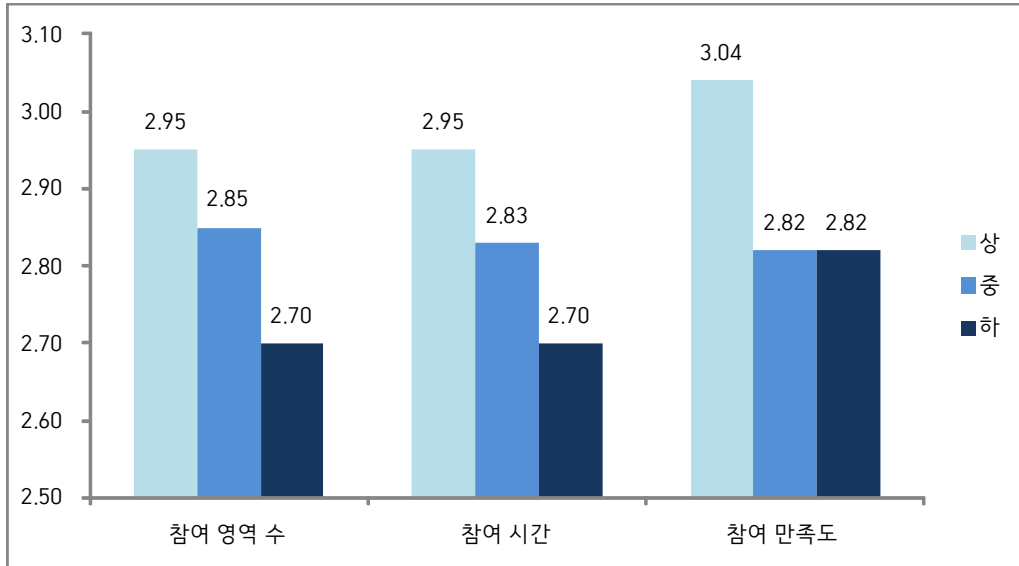
④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사관계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시기 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95), 중(평균=2.85), 하(평균=2.70) 집단의 순으로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12>, [그림 IV-12]).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시기 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 시간이 상(평균=2.95), 중(평균=2.83), 하(평균=2.70) 집단의 순으로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참여 만족도 상(평균=3.04), 중 및 하(평균=2.82) 집단의 순으로 교사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참여 시간이 높을수록, 그리고 참여 만족도가 상→중→하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 교사관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사관계

표 IV-1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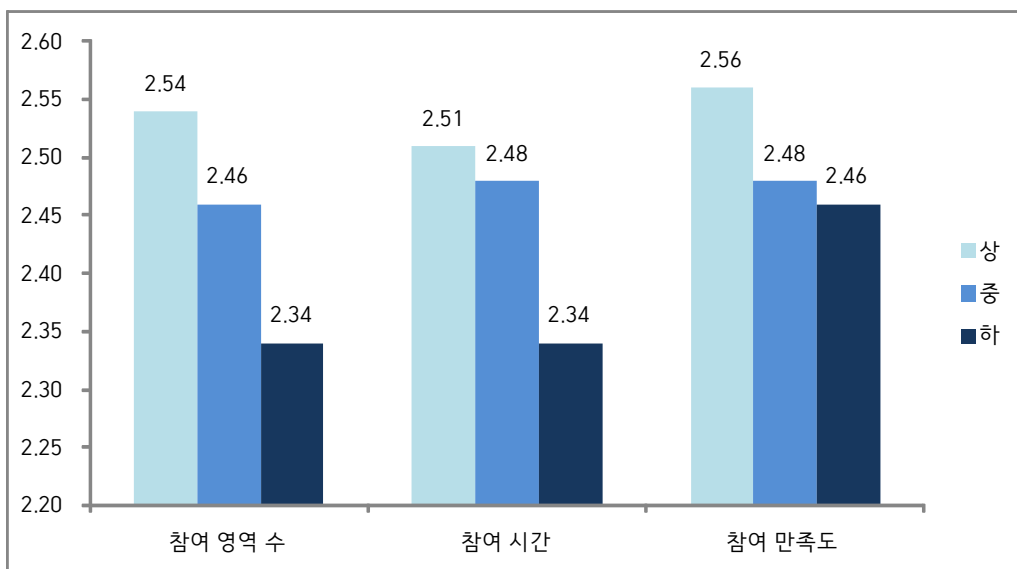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4	2.95	0.63	12.416***	상>중>하
	중	1,051	2.85	0.62		
	하	140	2.70	0.63		
	소계	2,225	2.89	0.63		
참여 시간	상	1,096	2.95	0.61	14.872***	상>중, 상>하
	중	928	2.83	0.63		
	하	141	2.70	0.63		
	소계	2,165	2.88	0.62		
참여 만족도	상	752	3.04	0.62	29.492***	상>중, 상>하
	중	354	2.82	0.58		
	하	965	2.82	0.63		
	소계	2,071	2.90	0.63		

주) *** : $p<0.001$, ** : $p<0.01$, * : $p<0.05$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사회인식

①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당시 지역사회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54), 중(평균=2.46), 하(평균=2.34) 집단의 순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13>, [그림 IV-13]).



[그림 IV-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지역사회 인식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시기 지역사회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참여 시간이 상(평균=2.51), 중(평균=2.48), 하(평균=2.34) 집단의 순으로 지역사회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와 중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지역사회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2.56), 중(평균=2.48), 하(평균=2.46) 집단의 순으로 지역사회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의 지역사회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지역사회 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28	2.54	0.51	11.579***	상>중>하
	중	1,045	2.46	0.56		
	하	140	2.34	0.58		
	소계	2,213	2.49	0.54		
참여 시간	상	1,090	2.51	0.53	6.786**	상>하, 중>하
	중	923	2.48	0.56		
	하	141	2.34	0.58		
	소계	2,154	2.49	0.54		
참여 만족도	상	745	2.56	0.52	8.532***	상>하
	중	351	2.48	0.50		
	하	963	2.46	0.56		
	소계	2,059	2.50	0.54		

주) *** : $p(0.001)$, ** : $p(0.01)$, *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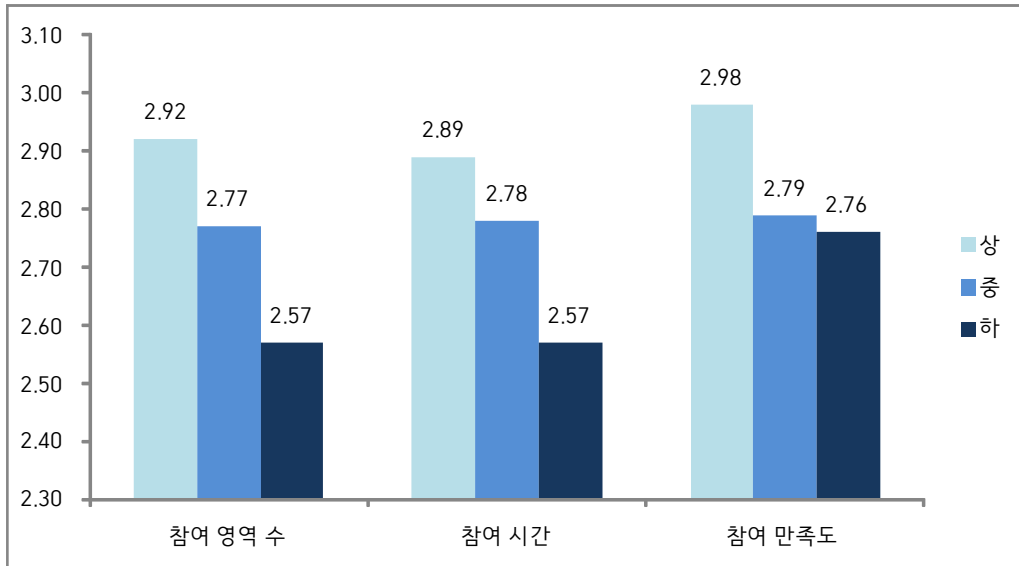
②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공동체 의식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2.92), 중(평균=2.77), 하(평균=2.57) 집단의 순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14>, [그림 IV-14]).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시기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 상(평균=2.89), 중(평균=2.78), 하(평균=2.57) 집단의 순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2.98), 중(평균=2.79), 하(평균=2.76) 집단의 순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공동체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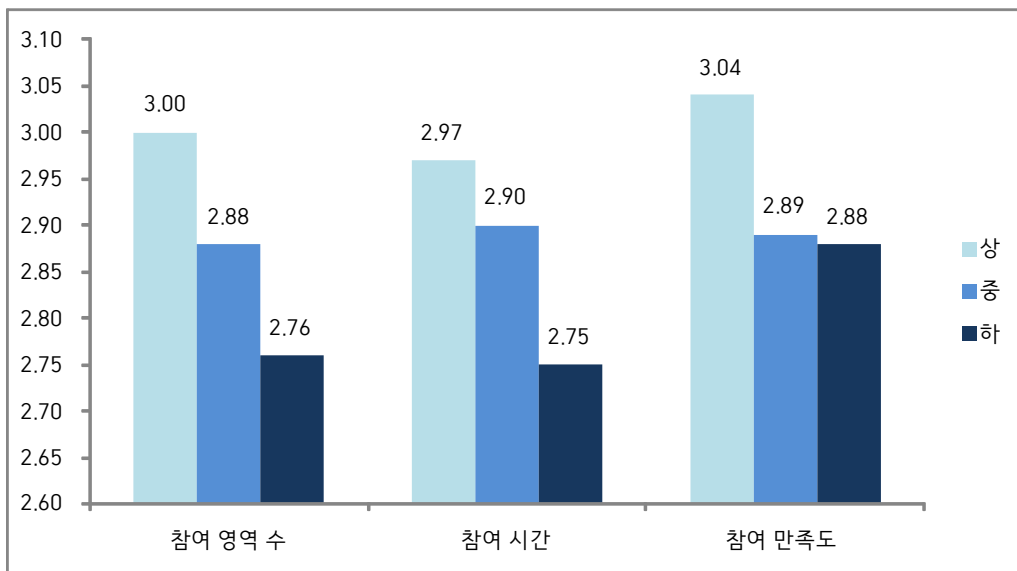
표 IV-14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공동체의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4	2.92	0.57	30.933***	상>중>하
	중	1,050	2.77	0.60		
	하	140	2.57	0.67		
	소계	2,224	2.83	0.60		
참여 시간	상	1,094	2.89	0.57	22.433***	상>중>하
	중	929	2.78	0.60		
	하	141	2.57	0.67		
	소계	2,164	2.82	0.60		
참여 만족도	상	750	2.98	0.58	32.511***	상>중, 상>하
	중	354	2.79	0.50		
	하	966	2.76	0.61		
	소계	2,070	2.84	0.59		

주) *** : $p<0.001$, ** : $p<0.01$, * : $p<0.05$

③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다문화 수용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중학교 2학년(2011년)까지 2년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 수와 중학교 3학년 시기 다문화 수용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영역의 수가 상(평균=3.00), 중(평균=2.88), 하(평균=2.76) 집단의 순으로 다문화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V-15>, [그림 IV-15]).



[그림 IV-1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다문화 수용

또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과 중학교 3학년 당시 다문화 수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 상(평균=2.97), 중(평균=2.90), 하(평균=2.75) 집단의 순으로 다문화 수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다문화 수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참여 만족도 상(평균=3.04), 중(평균=2.89), 하(평균=2.88) 집단의 순으로 다문화 수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 상 집단과 중 집단 간의 차이와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이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5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다문화 수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참여 영역 수	상	1,033	3.00	0.59	16.811***	상>중, 상>하
	중	1,050	2.88	0.63		
	하	140	2.76	0.66		
	소계	2,223	2.93	0.62		
참여 시간	상	1,093	2.97	0.60	9.126***	상>중>하
	중	929	2.90	0.62		
	하	141	2.75	0.66		
	소계	2,163	2.92	0.61		
참여 만족도	상	750	3.04	0.61	15.418***	상>중, 상>하
	중	354	2.89	0.59		
	하	965	2.88	0.62		
	소계	2,069	2.94	0.61		

주) *** : $p<0.001$, ** : $p<0.01$, * : $p<0.05$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최근에는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지닌 장점과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고, 교육제도 등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실태의 변화를 다년간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체험 활동 관련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단조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2010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이 중학교 3학년(2012년)이 되는 3년간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 참여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세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태나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년간 참여한 체험활동 참여정도가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사회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체험활동이 지닌 의미를 찾아보려는 목적도 지닌다.

연구결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의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청소년의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봉사활동(2010년 61.0%, 2011년 52.6%, 2012년 56.7%)과 직업체험활동(32.0%, 21.2%, 28.0%)은 중학교 2학년에 감소했다가 3학년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대부분의 체험활동 영역 참여율이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가구 소득 규모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9개 체험활동 영역별 중학교 3년 동안 총 참여시간의 1년간 평균시간의 경우도 중학교 1학년(2010년)에는 1개 영역별로 평균 7.22시간, 중학교 2학년(2011년)에는 평균 9.49시간, 중학교 3학년(2012년)에는 6.91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봉사활동

동(2010년 9.51시간, 2011년 10.66시간, 2012년 10.82시간)은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자원봉사활동 의무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체험활동 영역별로 희망 체험활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 활동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한 반면에, 건강·보건활동이나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직업체험 활동 등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학년별로 체험활동 영역별 희망 체험활동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은 모험개척 활동(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과 3학년은 직업체험활동(2011년 17.0%, 2012년 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정도 변화를 살펴보면, 9개 영역의 체험활동 중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참여한 영역은 총 2.41개,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1.61개, 중학교 3학년은 1.53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한 영역이 많게 나타났다.

학년별 체험활동 총 참여시간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1년간에는 총 18.98시간, 중학교 2학년에는 14.92시간, 중학교 3학년에는 11.34시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보다 남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규모는 작을수록 참여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체험활동 참여시 만족도는 중학교 1학년 3.11, 중학교 2학년 3.16, 중학교 3학년 3.1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고, 남자보다 여자가, 도시규모가 클수록,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2010년)부터 2학년(2011년)까지 2년간 체험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참여 영역의 수가 많고, 시간이 길며,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경우도 중학교 2학년까지의 참여 영역의 수, 참여 시간, 만족도 길고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진로정체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참여 영역 수, 참여시간)이 높은 집단일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목표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사회적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와 의사소통 능력, 친구간 신뢰 정도, 학교 내 학습활동이나 교칙 준수정도, 교사와의 관계가 대부분 참여 영역의 수가 많을수록, 총 참여 시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지역사회 인식이나 공동체 의식, 다문화에 대한 수용정도의 경우도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한 체험활동 영역 수가 많을수록, 체험활동 총 참여 시간이 길수록, 참여한 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높게 조사되었다.

2. 정책제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경험과 만족도는 향후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발달과업의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가 자발적이던 수동적이던간에 이러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체험활동 경험은 미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진로정체감 등 자아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여율이나 참여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단 참여한 이후의 만족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결과도 확인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의무제도에 따라 참여경험이나 시간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 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 제도, 체험활동의 우수한 결과사례에 대한 포상강화 등)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진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참여동기 부여제도(체험활동 참여 마일리지의 전환 또는 기부 등)를 개발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격차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가족의 소득규모별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시간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체험활동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가정경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경비보조, 관련 시설 설치나 이용시 소외지역 우선배정 강화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이라는 고객 중심의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다양한 영역별 전문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중학교 내에서도 학년별로 참여 희망 영역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참여시간이나 참여율 등이 점차 일부 체험활동 영역으로 집중되는 경향도 파악되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정책의 수립과 시행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특정 영역의 체험활동 참여율이나 희망정도가 낮다고 해당 영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체험활동의 대표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체험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의 교급이나 학년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요구에 적합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등 현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체험활동의 전문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가 필수적이다.

청소년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 통계를 보면 청소년수련활동시설의 경우 증가추세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지도사의 경우 수적인 측면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체험활동의 중장기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충원이나 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으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가 지닌 의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체험활동 경험은 단순히 청소년기에 효과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가 지닌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강수정(2001).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 인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관우, 남진열(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곽민정(201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일(2007). 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과 정서발달사이의 관계.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덕주(2008). 중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2005). 봉사활동 프로그램 적용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2003).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2007). 수련활동 체험이 청소년의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2010). 청소년의 체험활동, 자아요인, 유의미타자,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구(2008). 청소년참여활동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욱(200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0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수원 성 빈센트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2009).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정도가 리더십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11). 직업체험활동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심(2007). 청소년의 문화활동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시영, 강방훈(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백동진(2012).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동아리활동의 조절효과 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천웅·남혜선(2013).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다문화 수용성,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을 중심으로.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재홍(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심리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종국(2004). 체험활동중심 진로탐색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2), 92-105.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유형순(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인성발달요인과의 관계연구 : 성남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2011). 청소년활동의 참여와 시민성의 관계 : 광명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2005). 학교 밖 일상 체험활동의 청소년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372-396.
- 이금희(2006). 중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체험학습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라(2013). 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2012).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자(2007).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2009). 가족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맹환(2003).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2010). 청소년 활동의 경험학습 모형에 따른 경로분석.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령(20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및 지속적 참여경험의 효과성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광호(2010).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차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매뉴얼. 동국대학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홍재양(2001). 봉사체험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Changes in Youths'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Their Self-re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analysis from middle school year 1 to year 3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hanges in youths'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over time during their middle school year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ir level of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in their first and second years (2010 and 2011) and their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heir third year in middle school, and ultimately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youth activities, using the first to third year survey data of the middle school year 1 panel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The key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changes in youths' participation in each area of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rates in the nine activity areas during the three years in middle school and the amounts of time they spent decreased over time, save for voluntary activities and vocational experience activities that decreased in the second year and rebounded in the third year. For most youth activities, the bigger the community they lived in and the higher their family income, the more youths participated in youth activities.

Second, as for changes in youths'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the number of youth activity areas they were involved in the first year decreased over time. 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more areas than female students did, and students in bigger cities and richer families participated in more youth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went up over time. And female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youth activities than male students were, and students in bigger cities and richer families were more satisfied.

Thir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ime spent in, and satisfaction with youth activities involved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2010 - 2011) and various aspects of their self-recognition in the third year showed that groups that had participated in more areas, had spent more time, and had been more satisfied had higher self-esteem, self-respect and career identity.

Fourth, as for youths' communication skills with friends, trust, academic activities, recognition of the community and community spirit, groups that had more participated in youth activities (higher participation rates and longer time spent)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showed higher social relationship development in the third year.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 youth activity, self-recognition, social development, longitudinal analysi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2010(KCYPS).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명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해연 · 김균희 · 이윤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해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 단연구 / 이종원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이영화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시과제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허효주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업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토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14-3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 영 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834-2 94330

ISBN 978-89-7816-831-1 (세트)